

“역대 최악 차별금지법 막자”... 28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국민과 한국교회 연합해 대응... 광화문 일대 퍼레이드 예정”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를 위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부터 대한문까지 구간에서 열린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회장 김운성 목사)는 이번 국민대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손술-정춘생 차별금지법안이 역대 최악의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이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한국교회와 시민사회가 연합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회 이후에는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서 퍼레이드도 진행될 예정이다.

퍼레이드 행진은 동화면세점과 시청교차로를 출발점으로 하는 복수의 코스 가운데 하나를 택해 광화문과 경복궁 인근 도로를 따라 진행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2개 차로를 사용해 약 17~3.9km 구간을 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회의 취지와 계획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용희 교수(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최근 발의된 법안의 제재 수위와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교수는 “최근 진보당 손술 의원과 정의당 정춘생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역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가운데서도 제재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신앙적·양심적·학문적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은 ‘부정적 관념을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설교나 신앙적 가르침마저도 차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며 “신앙적 양심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 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집단소송도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동성애 반대 설교를 이유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차별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교단 헌법은 동성애자나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교단 규정에 따라 사역자나 직원을 선발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며 “동성애자가 상처를 받았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부교역자가 목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외적 행동이나 정체성 표현까지 법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제로는 국민 반대가 우세해 왔지만, 거짓 콘텐츠가 반복되면 결국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며 “과거 지상파 방송에서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됐지만 실제 질문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이미 긍정적 가치 판단이 개입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주요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독교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핵심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도한다면 법 제정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차별금지법을 “성행명과 성독재 국가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담긴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역시 보이스피싱이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내지 않듯, 이단이 노방전도에서 교주의 신격화를 먼저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사진 촬영에 임한 관계자들의 모습. ©김진영 기자



(왼쪽부터) 홍호수 목사, 이용희 교수, 박한수 목사 ©김진영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됐던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 ©기독일보 DB

박 목사는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법안에서 ‘동성애’라는 표현 대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법이 통과되면 결국 동성애와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법은 남녀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며 다음 세대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이러한 흐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나 취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능력이 있으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인데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는 식의 주장의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과 같은 기자회견조차 혐오 표현으로 규정돼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목사는 대한민국 시민과 성도 여러분이 진보와 보수 따지지 말고 상식과 통리에 따라 3월 28일 국민대회에 참석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쳐달라고 호소했다.

행사 소개를 맡은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며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거짓된 흐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방파제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일반 국

서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적 저항권이 있다”며 “침묵은 동조다.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끝으로 “역대 최악의 악법으로부터 한국과 교회, 다음세대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도록 이번 통합국민대회에 참여해 달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교단들의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호수 목사는 일부 교단의 관심이 과거보다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목사는 2015년 거룩한방파제가 출범한 이후 한국교회 연합체들과 협의를 통해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홍 목사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거룩한방파제의 활동이 한국교회 연합체들의 움직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교단들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수 목사는 “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마귀의 전략이다. 에스더처럼 소신을 갖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이 법안의 문제를 확실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용희 교수는 “이번 대회는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보다 기독교적 가치를 앞세워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성격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주최 측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에서 “진보당 손술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이 각각 2026년 1월과 최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2007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 가운데서도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춘생 의원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규정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차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동성애나 성전환, 낙태 등에 대해 신념에 따라 반대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에 포함된 ‘괴롭힘’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는 “손술 의원안과 정춘생 의원안 모두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정 사유를 이유로 부정적 관념을 표현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최 측은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주최 측은 “법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 성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며 “2024년 10월 2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혔고, 2025년에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술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철회 ▲‘성평등’ 정책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 ▲동성 결합을 제도화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시도 중단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하려는 시도 중단 ▲동성혼 합법화 관련 헌법소원 각하 및 기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차별금지법이 국민의 건강과 가정,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영구 기자

전 외교관 채용안 장로
“10년 내 통일 될 것” >> 7면

룻기의 새 해석... 뮤지컬 영화 ‘룻기 원 뉴 맨’ >> 24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스위치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인권위, 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권고 추진

북한군 포로 송환 대응 마련 위해 전원위원회 논의 착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포로로 잡혀 현지에 억류 중인 북한군 전범 및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최근 개최된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북한군 포로들의

신변 처리와 관련해 인권위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파병 및 포로 발생 상황과 맞물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인권 보호와 송환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북한군 포로 2명이 체포되어 억류된 상태에서 보수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오완호 상임위원은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위가 이 사안을 공식화하여 정부의 입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부 차원의 송환 노력 촉구 및 공식 안전 상정 지시

인권위 위원들은 단순한 입장 발표나 성명서 채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 권고'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관련 부처와 관계 기관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권고안 작성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안

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군 포로들의 안전한 이송과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진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러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권고나 의견 표명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이 정식 의안으로 상정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사무처에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의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사무처는 우크라

이나 현지 상황과 국제법적 근거, 그리고 국내법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권위는 사무처의 검토 보고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전원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정부에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식적으로 권고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권고가 확정될 경우, 이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첫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될 전망이다. 박용국 기자

대광기총 “종교 자유 말살하는 민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하보 목사(사진), 이하 대광기총)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협하는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순교적 각오로 맞설 것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국가의 종교단체 감독 권한, 종교법인 재산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대광기총은 특히 개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의미한다’

며 “그러나 본 개정안은 이를 180도 왜곡하여 종교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치 개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의 사회적 발언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성경적 가치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낙태 반대 생명 운동을 전개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는 설교는 종교 본연의 사명이지 결코 ‘반란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단체 조사 권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광기총은 “개정안 제38조의2는 주무관청이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 영장도 없이 교회에 출입하여 장부를 검사하고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이 예배 현장에 잠입하여 설교를 감시하고 신도들의 활동을 사찰하겠다는 ‘종교 감시 체제’의 구축”이라며 “우리는 이를 현대판 ‘종교 재판’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종교법인 재산 처리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성명은 “개정안 제80조는 설립허가 취소된 종교법인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교회 재산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이자 자발적 헌금으로 형성된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국가가 강제 몰수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하는 폭거이자, 교회의 뿌리를 뽑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종교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의 정치 참여를 ‘반란’이라 지칭하며 개신교에 대한 수사와 제재 강화를 직접 언급했다”며 “행정부 수반이 특정 종교를 범죄

집단화하고 수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광기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는 민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정치 개입’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영장주의를 무시한 교회 사찰과 성도들의 소중한 재산을 몰수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대광기총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창조 질서 기반한 양성 질서 수호 앞장서야”

살롱나비 논평

‘살롱을 꿈꾸는 나비행동’이라 살롱나비(이하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목욕탕·점점방 이용을 허용한 미국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자연적 성(性) 질서를 거부하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살롱나비는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성 정체성을 근거로 여성 전용 공간 이용을 허용하는 판결은 아동과 여성의 안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성소수자의 주관적 판단을 법과 제도의 기준으로 삼는 젠더 법제화는 성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여성 시설 이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대형점점방 등이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저지와 버지니아 등지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시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성 정체성과 여성 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롱나비는 이러한 판결이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는 젠더 법제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이 객관적 질서 유지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보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전용 공간 보호권보다 젠더 정체성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다수 시민의 양심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사우나 이용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한 불편 제기나 문제 제기가 차별로 간주돼 형

식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포츠체육 분야에서도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종목 참가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소수자 포용 정책이 오히려 여성 선수들에게 새로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살롱나비는 특히 이러한 흐름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판결이 국내 목욕탕·점점방 문화에도 유사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젠더 법제화 논의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다수 시민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되 성적정체성 권리는 공동체 질서 속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목회자들 중 현재 ‘주식 투자’를 하는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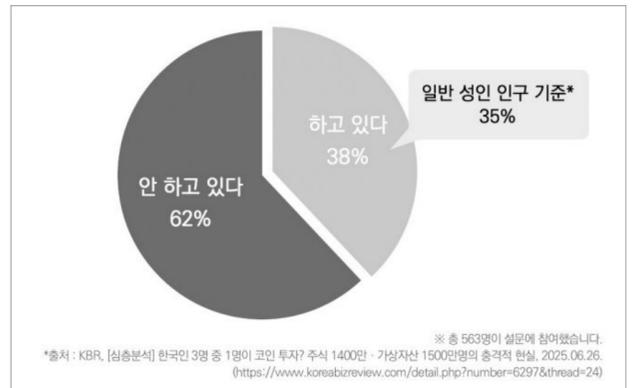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563명 대상 설문조사

목회자 10명 중 4명 가까이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 구독자 중 목회자 563명을 대상으로 ‘현재 주식 투자 여부’를 물어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목회자의 주식 투자 비율은 38%로 일반 성인 인구 투자 비율(35%)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62%였다.

목데연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는 코스피 5000이라는 유례없는 호황 속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기면서 전국적으로 주식 투자 붐이 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답변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에서 목회자들 역시 자산 관리와 노후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EWP 한국동서발전주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 제3대 원장에 박광혁 장로 취임

새문안교회서 취임감사예배 열려... 박광혁 장로 "기독교역사문화 알리는 사명자 양성"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사장 이덕주 목사, 소장 한규무 교수) 부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 3대 원장 취임감사 예배가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새문안교회(담임 이상학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박광혁 장로가 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박광혁 장로는 취임 인사를 통해 먼저 제2대 원장인故 왕보연 장로를 기리며 "오늘 아취임식이 아닌 취임예배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허전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역사적 유산을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는 기독교문화유산 해설사의 역할에 대해 "책에 나열된 시간의 역사를 보완해 공간의 역사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연결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또한 공간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때, 무심코 지나쳤던 장소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고 했다.

박 장로는 "공간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무심코 지나쳤던 장소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곳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진다"며 "그 결과 우리는 공간을 새롭게 사유하게 되고 그 공간은 의미 있게 되살아난다"고 했다.

◆한국 초기 선교와 근대화 역사 담임 '기독교 역사 공간' 의미 강조

박광혁 장로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 공간이 단순한 장소를 넘어 한국 사회의 변화를 담고 있는 역사적 현장"이라며 "공간의 역사에는 잊혀져 가는 한국 초기 선교와 조국 근대화의 이야기가 품성하게 담겨 있다"고 했다.

특히, 교육과 의료를 통한 선교 활동이 한국 사회에 남긴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선교사들의 교육 사역은 많은 지식인을 길러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였으며,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며 "또한 나라를 잃었던 시기 민족 지도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희망의 빛을 비추었고, 독립 의지와 사회 개혁을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공간을 통해 알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외국에 가는 한국 기독교를 일깨우고 사회 현상에 대해 무력해진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함께 감당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회 속에서 생명의 빛과 등대 역할을 감당할 역사적 사명자를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역이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협력과 기도를 요청했다. 박 장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일수록 출중한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과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기도와 헌신,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에 함께하며 생산적인 모임이 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축하와 인사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박서운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 3대 원장 취임감사 참석자 기념 사진. ©장지동 기자

장로의 인도로 시작됐다. 이어 김용환 장로(안산제일교회)의 기도과 김경옥 권사(예능교회)의 성경봉독이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이창재 목사(인천중앙교회 담임)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고전 10:3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대부분의 기도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타락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며 "힘은 사람을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힘이 있으면 스스로 유혹의 자리로 가게 된다. 든든한 칼에는 그에 합당한 칼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뿐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장으로 취임하는 박광혁 장로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강요섭 목사(100주년기념교회 공동담임)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2부 순서는 정남환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임명장 수여와 축사, 격려사, 축

가, 감사 인사와 내빈 소개 순으로 이어졌다.

축사를 전한 한규무 교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부설 기관이지만 오히려 연구소보다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소가 상위 기관으로서 지도와 조인을 하겠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며 박광혁 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격려사를 전한 박상진 장로(100주년기념교회)는 "제3대 원장의 취임에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믿음의 선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남긴 신앙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받



박광혁 장로가 취임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은 은혜를 구별하고 확산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자 보람"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독교문화유산아카데미는 교육을 통해 훌륭한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하고 기독교 역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신앙 안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봉사하며 헌신해 온 박광혁 장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 준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원장직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신앙과 문화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학문과 현장, 신앙과 사회를 잇는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아카데

미가 더욱 성장할길 바란다"며 "임원진과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는 안창민 장로(총무)의 광고 순서로 마무리됐다. 이날 예배 참석자들에게는 연구소가 발행한 도서 『31운동과 기독교 민족대표 16인』이 증정됐다.

◆기독교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 지속... 답사 프로그램도 예정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는 현재 기독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강좌를 비롯해 기독교 역사 유적 및 일반 문화유적 탐방, 그리고 기독교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는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제6기 2학기 기독교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5월 14일에는 강화도와 교동도 지역에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제53회 정기 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박광혁 장로는 그동안 한국성서유니온 이사과 재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복음서림 대표와 본바이오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또한 벨살로교회를 개척 설립했으며 기독교문화유산연구회와 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 감사 등을 맡아 활동했다. 기독교문화유산해설사 과정 1기를 수료한 그는 현재 100주년기념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장지동 기자

'어와나 교사컨퍼런스', CDFK로 새 출발... 다음세대 사역자에 문호 확대

서울·대구서 4월 개최... 어린이 제자훈련 방향과 교회학교 전략 공유

한국교회 어린이 제자훈련 사역의 대표적인 모임으로 알려진 '어와나(Awana) 교사컨퍼런스'가 올해부터 'CDFK(Child Discipleship Forum Korea)'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CDFK는 기존 어와나 교사 중심의 컨퍼런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모든 주일학교 교사와 다음세대 사역자들에게 참여의 문을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주회 측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다음세대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 방향과 사역 전략을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어와나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전달의 방향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적 지침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CDFK는 수도권과 남부권 사역자

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서울 포럼은 오는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척교회에서, 대구 포럼은 4월 18일 같은 시간대에 대구 성명교회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음세대 사역과 교회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 온 강사진이 참여해 다양한 강의를 진행한다.

한국 어와나 대표이자 어와나 세계 부총재인 이종국 목사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어와나라는 주제로 다음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제자훈련의 핵심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두 번째 주제 강의는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서울 포럼에서는 말씀심는교회 백은실 사모(극동방송 '좋은아침입니다' 진행)가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삶 속에 새기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나눌 예정이다. 대구 포럼에서는 피에타스신교지원연구소 대표 권을목사가 인생을 바꾸는 성경 암송이라는 주제로 말씀 암송이 신앙과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소개한다.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인권앰파트너스 대표이자 『5무교회가 온다』의 저자인



한국 어와나 대표이자 어와나 세계 부총재인 이종국 목사. ©한국 어와나

황인권 대표가 '멤버십 교회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교회 공동체의 흐름을 조망한다. 이어 유튜브 채널 '유목민 이야기'를 운영하는 유승현 목사가 '교회 학교를 리셋하라'는 주제로 오늘날 교회 학교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다음세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기독교 윤리학 박사 이종성 목사가 'AI 시대, 교사는 답 전달자가 아니라 질문이 생겨나는 삶과 관계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교사의 역할과 다음세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CDFK 관계자는 "어린이 제자훈련은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역"이라며 "그동안 Awana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컨퍼런스의 유익을 한국교회 모든 다음세대 사역자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세대를 고민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DFK 참가 신청과 세부 일정은 Awana Korea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지난해 어와나 교사컨퍼런스 참석자들의 단체 기념촬영 모습. ©한국 어와나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라이프호프, 부활절 자살예방 캠페인 참여 호소



조성돈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라이프호프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생화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이프호프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살 예방 캠페인 참여를 요청받고 있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는 '생명의 꽃을 피우라' 부활절 자살예방 캠페인에 한국교회 동참을 호소했다. 이 캠페인은 교회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캠페인에 참여한 교회들은 다

양한 방식으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 지구촌사랑교회는 용산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적힌 반창고를 나눠주며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인천 부평 선일감리교회는 위기 가정을 찾아 '생명 키트'를 전달했고, 경기 부천 내동감리교회는 교회 주차장을 비워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 교회는 또 생명부흥회를 열어 성도들이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교육을 받도록 했다.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는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생명의 의미를 가장 선

명하게 드러내는 절기라며 "이 시기를 맞아 교회가 함께 죽음이 아닌 삶의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이 캠페인은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주요 교계 단체들이 협력해 진행한다. 참여 교회에는 '당신의 인생 책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담은 부활절 절교 가이드가 제공되며, 자살 유가족 연합예배와 '생명을 향한 한 걸음' 국토종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다. 부활절에 모인 생명헌금은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과 유가족 지원 사

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으로, 하루 평균 약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캠페인에 참여한 교회는 약 80곳에 그쳤다. 라이프호프는 올해 참여 교회를 100곳 이상으로 늘려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김주선 사무총장은 "지역 교회가 마음을 열면 주변에서 생명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며 "더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다”... 소망교도소, ‘무화과나무 프로젝트’ 6월 시행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책임 인식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 이사장 김삼환)는 오는 6월부터 '무화과나무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를 정식 교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이해하도록 돕고, 수용자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하

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다.

'무화과나무 프로젝트'는 국제 교정 선교 단체인 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PFI)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며,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취지다.

소망교도소는 프로그램 시행에 앞

서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무화과나무 프로젝트 전문강사 양성 교육'에 참여해 운영 준비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과 Prison Fellowship Korea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교도소 심리치료팀과 회복적 정의 전문가, 상담가,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회복적 정의 이론과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 소개됐고, 실제 운영을 위한 실습과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강의는 PFI 관계자들이 맡았다. 로이 무살리 무화과나무 프로젝트 총괄 트레이너를 비롯해 다니엘 베이 PFI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임 디렉터, 사라 팡 지역 코디네이터, 코너 와이즈 교정 프로그램 매니저 등이 교육에 참여해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다니엘 베이 선임 디렉터는 "무화과나무 프로젝트가 소망교도소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 교정시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며 "수용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의 출발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망교도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수용



무화과나무 프로젝트 전문강사 양성 교육을 마치고. ©소망교도소

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직면하며 책임 있는 삶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식 소장은 "전문 강사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수용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진정한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망교도소는 2010년 한국 교회 연합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교화 중심 민영교도소다. 교도소 측은 앞으로도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용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 클리어 옛지뷰 : 논실리콘 디자인

—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1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8회) LX Z:IN 창호

LX Z:IN

예수대 간호학부, 나이팅게일 선서예배 개최

예비 간호사 138명 '전문직 사명'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

예수대학교(총장 김찬기) 간호학부 3학년 학생들이 지난 4일 교내 Seel Chapel에서 2026학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예배를 드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예배는 채윤정 교수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묵도와 찬송, 기도, 성경봉독, 말씀, 나이팅게일 선서, 격려사, 축송 순으로 이어졌다. 기도는 이정옥 학부장이, 성경봉독은 윤지영 부학부장이 맡았으며 안웅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3학년 학생 138명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했고, 예수병원 한순희 간호국장의 격려사와 유찬진 졸업생의 축송이 진행됐다. 예

배는 안웅현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안웅현 목사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명자에서 사명자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안 목사는 예비 간호사들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이어진 나이팅게일 선서에서는 김수인, 임현성 학생을 포함한 3학년 학생 138명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 전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다.

한순희 간호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예비 간호사들이 전문 지식과 따뜻한 인성

예수대 간호학부 나이팅게일 선서예배 참석자 기념 사진. ©예수대

을 겸비한 간호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병원 역시 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의 환경 속에서 실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정지동 기자

안기총, 내달 5일 '2026 안산시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경기 안산 지역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린다.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광섭)는 오는 4월 5일 오후 7시 꿈의교회에서 '2026 안산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배는 지역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예배의 주제는 '오직 예수 복음으로 안산 성시화(행 1:8)로 정해졌다. 설교는 꿈의교회 담임인 김학중 목사가 맡아 부활 신앙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이날 예배에서는 다양한 찬양 순서도 진행된다. 색소포니스트 최희훈을 비롯해

이레 하림워십, 리포엠 정민성 등이 무대에 올라 특별 찬양을 선보이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송광섭 대표회장은 "부활절을 맞아 안산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고신대·고신대복음병원, 80·75주년 맞아 산상기도회 개최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개교 80주년과 개원 75주년을 맞아 얼마 전 무척산경건훈련원에서 산상기도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기도회에는 고신대학교 이정기 총장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최종순 병원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해 학교와 병원의 사명과 미래를 위해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학교법인 고령학원 이사 성훈 장로의 대표 기도예에 이어 예배소서 6장 18절을 본문

으로 우병훈 교목실장이 '기도의 네 가지 은혜'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우 교목실장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로 깨어 있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부 기도회에서는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비롯해 고신총회와 학교법인 고려학원, 고신대학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학대학원을 위해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학과 병원이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교회와 지역사회, 나

고신대·고신대복음병원, 80·75주년 산상기도회 참석자 기념 사진. ©고신대

아가 열방을 섬기는 기관으로 서가기를 기도했다. 정지동 기자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 달라스 교회사역 세미나 개최

월드미션대학교(WMU)가 주관하고 미주 기독교일보가 후원한 교회사역 세미나가 지난 3월 6일 달라스 영락장로교회(담임 명치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할 설교, 공동체, 영성, 가정신앙, 정신돌봄, 예배 사역 등을 주제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강의와 교제 시간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 방향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변화하는 이민교회, 설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첫 강의에서 임성진 총장은 변화하는 이민교회 환경 속에서 설교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민교회가 세대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 속에 놓여 있는 만큼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과 연결되는 말씀 중심 설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목회자는 정보나 자료에 의존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붙드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은 설교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설교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전하는 영적 사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설교자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면서도 성경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균형을 가져야 하며, 성도들의 삶의 고민과 현실을 말씀 안에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민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인 만큼 설교가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목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소그룹이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

이러 신신목 교수는 팬데믹 이후 교회 공동체 회복 과정에서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 약화를 경험했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소그룹 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소그룹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함께 성장시키는 영적 공동체의 기본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그룹을 통해 말씀 나눔과 기도, 돌봄이 이루어질 때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자훈련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AI 시대, 바울의 영성에서 찾는 영혼 돌봄의 길

세 번째 강의에서 남중성 교수는 "AI 시대의 영혼 돌봄: 바울의 영성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돌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는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내면은 고립과 영적 공허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가 단순히 정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 영성을 예로 들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발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의 믿음을 격려했고 기도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김민선 기자

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바울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와 말씀, 그리고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돌보았으며 이러한 영적 돌봄이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할 목회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AI 기술이 목회 사역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술이 인간의 영성과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결국 교회의 사명은 사람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목회적 돌봄과 영적 동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예배 회복이 다음 세대 신앙의 핵심

이어진 오후 강의에서 최윤정 교수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핵심으로 가정예배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신앙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교회 교육 프로그램보다 부모의 신앙과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이 자녀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와 신앙에 대해 대화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가족 간 신뢰와 관계도 더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교회 프로그램만으로는 신앙 전수가 완성될 수 없다"며 "가정이야말로 신앙이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작은 신앙 습관이 결국 다음 세대의 믿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위기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치유 사역

다섯 번째 강의에서 김경준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우울감과 불안,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

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단순히 신앙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가 설교자 역할에만 머무르기보다 성도들의 삶을 경청하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약함이나 신앙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교회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붙들어야 할 교회 음악의 핵심 가치

마지막 강의에서 윤임상 교수는 "AI 시대에 붙들어야 할 교회 음악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예배 음악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음악 창작과 제작 방식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교회 음악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 고백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교회 음악이 단순한 공연이나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고백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대가 변화해도 예배 음악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교회는 기술의 도움을 활용하되 예배의 중심과 영성을 지키는 음악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의뿐 아니라 참석자들 간 교제와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돼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붙들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세미나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필요한 목회 교육 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강의 내용이 실제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이민교회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회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WMU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특정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민교회 한민교회를 섬기기 위한 기독교 대학의 공적 사명에서 출발한 자리"라며 "AI 시대일수록 교회는 영성과 돌봄이라는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나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회자 20명 모여 설교 나눔과 멘토링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강남회관에서 김준식 목사와 목회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는 이렇게 설교합니다!'를 주제로 한 목회 멘토링 모임이 열렸다. 이번 모임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World Share USA(대표 강태광 목사) 바나바사역팀(담임 민경엽 목사)이 마련했다.

이날 멘토로 초청된 김준식 목사는 약 40년 동안 목회자로서 설교하며 살아온 삶과 설교 준비의 원칙을 나누었다. 김 목사는 "주일 설교를 마치면 곧바로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한 주간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World Share USA 바나바사역팀 설교 나눔과 멘토링 시간 ©주최 측 제공

말씀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김 목사는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

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 설교 준비 방식을 소개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한 목회자들은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강태광 목사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설교에 대한 이해와 설교 준비 노하우를 소개하는 나눔의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목회 현장에서의 설교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을 공유했다.

World Share USA 바나바사역팀은 앞으로도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섬길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한 멘토링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샘 신 목사, 거주 상원 26지구 공화당 후보 출마 선언



샘 신 목사(Rev. Sam Shin·사진)가 캘리포니아 주 상원 26지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라기보다 섬기는 지도자로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지난 3월 LA 카운티 레지스터 오피스를 방문해 출마 신청서를 작성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민 1.5세로 미국에 정착한 그는 미군 복무와 경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에도 헌신해 왔다. 현재는 샘 커뮤니티 담임목사로 사역하며 화랑청소년재단,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한인 사회 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출마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이민자 경험과 사명감을 강조했다. 신 목사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언어도, 인맥도, 기반도 없는 상태였지만 미국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군인으로 나라를 섬겼고, 경찰관으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일을 했으며, 지금은 목사로서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고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7,5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끌며 다음 세대가 책임감 있는 시민과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특히 가정의 가치와 부모의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가정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며 "자녀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가정의 가치와 부모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여러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는 일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 상원의원이 될 경우 △공공 안전 회복 △소상공인 보호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책임 있는 정부 구축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나는 직업 정치인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출마했다"며 "겸손한 마음과 책임감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했다. 김민선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회복 넘어 사명으로” 교단 미래 조망

KPCA 50주년 회년 총회 준비 본격화

해외한인장로교회(회장 김경수 목사, 이하 KPCA)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년 총회를 준비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단은 총회 기간 동안 기념 논문 발표회와 50년사 발간, 회년 집회 등을 통해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고 교단의 정체성과 미래 사명을 함께 조망할 계획이다.

KPCA는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뉴욕 퀸즈 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제50주년 회년 총회를 개최한다.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 및 공향과의 인접성을 고려한 끝에 장소가 결정됐다. 총회에는 각 노회 총대들뿐 아니라 여성교회연합회와 사모회 등 교단 구성원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만큼 여러 기념 사업이 함께 준비되고 있다. 교단은 50년사 발간, 기념 논문집 출판, 회년 집회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회년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KPCA는 1976년 미주 한인 교회의 연합 속에서

출범했다. 당시 서부의 서노회, 중부의 시카고노회, 동부의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 동노회 등 세 노회가 중심이 되어 교단이 창립됐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올해 뉴욕에서 열리는 총회는 교단 창립 초기 동부 지역의 뿌리를 다시 돌아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이번 총회는 지난 반세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되고 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지난 50년을 정리한 'KPCA 50년사'가 발간된다. 이와 함께 교단의 역사와 신학, 선교적 과제를 조망하는 50주년 기념 논문집도 총회 기간에 총대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논문집에는 교단의 현재와 미래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포함됐다. 주요 주제로는 △총회의 50년 역사와 인물사 △통계로 보는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현황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단의 역할 △KPCA 교단의 정체성과 신학교육의 미래 △이민교회의 다세대 통합예배 △디아스포라 교회의 다음세대 신앙교육 △글로벌 선교 △초고령화 시대 교회의 사명 △여성 리더십 개발 △인공지능 시대의 신학적 과제 등이 제시됐다.



KPCA가 50주년 회년총회를 앞두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49회 정기총회 단체 기념촬영. ©KPCA

이 가운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관한 기독교교육학적 고찰'과 '글로벌 선교' 두 논문은 총회 기간 중 발표되는 학술 발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총회 둘째 날인 수요일 저녁에는 회년대회 겸 기념 집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교단 50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돌아보고 감사 예배와 기념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50주년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종훈 목사는 여러 분과위원회가 전문성을 살려 준비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50년사 편찬은 역사신학을 전공한 전 총회장 박태경 목사가 맡아주셔서, 기념 논문집 발간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CPU) 이상명 총장이 위원장으로 담당해주셨다"며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작업을 감당해 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

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과정과 관련해 "전체 구조를 세운 뒤 각 위원회가 전문성을 살려 일하도록 맡기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진행됐다"며 "각 분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일정을 세우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번 회년 총회의 의미에 대해 "성경에서 회년의 핵심은 회복"이라며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번 총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민교회의 미래와 관련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라는 교회론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연결되며 신앙의 흐름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며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 2025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 101곳 선정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커뮤니티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 역대 최대 지원 단체 수를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오픈뱅크(회장 오상교)와 오픈청지기재단(이사장 최화섭)은 4월, 2025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124개 단체가 신청해 역대 최대 신청 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101개 비영리단체가 최종 선정되어 수혜단체가 처음으로 100개 단체를 넘어섰다.

또한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는 기관도 23곳에 달하며, 총 지원금 규모는 48만 1천 달러다.

특히 올해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비영리단체 2곳이 처음 선정되는 등 처음 오픈청지기프로그램의 수혜단체가 된 곳도 19개 단체나 된다. 또한 남가주를 제외한 타지역에서 17개 단체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오픈뱅크가 2011년부터 오픈청지기재단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2026년 기준 2,119만 달러로 2천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다양한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에 지원한 금액 역시 총 720만 달러를 넘어섰고 누적 지원단체의 수도 270개를 기록하게 됐다.

재단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2025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했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웹사이트와 이메일

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진행했으며, 모든 단체가 문제없이 온라인 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한인 단체 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의 신청이 확연히 증가해 역대 최대 신청 기록을 세웠다. 재단 측은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중심으로 문의와 안내를 진행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서류 평가를 시행해 비영리단체들이 향후 다른 기부 기관에도 서류를 잘 준비해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새로운 수혜 단체가 늘고, 타 커뮤니티 단체들의 참여도 확대됨에 따라 재단은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지원금 전달식을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 12일 오후 5시 허핑턴센터에서 열리는 전달식에는 남가주 지역 수혜 단체 84곳이 참석하며, 지원금 전달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운영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와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텍사스와 네바다주, 그리고 북가주 지역의 수혜단체들에게 우편으로 지원금이 발송된다.

오픈청지기재단 최화섭 이사장은 "역대 최대 신청과 최대 수혜 단체 선정은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더 넓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펼치는 한편, 추가적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하여 한인 커뮤니티가 더욱 밝고 활기찬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그레이스 김 첫 개인전 '색이 머문 자리', EK 갤러리서 14일 개막



Grace Kim 작가의 첫 개인전 '색이 머문 자리'에 출품된 작품. ©주최 측 제공

이번 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났던 한인 작가가 다시 캔버스에 돌아왔다. Grace Kim 작가의 첫 개인전 '색이 머문 자리'가 오는 14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EK Gallery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은 뒤 이민 생활로 한동안 창작 활동을 중단했던 작가가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간직해 온 예술적 열망을 다시 펼쳐 보이는 자리다.

전시 제목인 '색이 머문 자리는 일상의 사물과 자연 풍경, 그리고 내면의 사유가 캔버스 위에 색

채로 남겨진 흔적을 의미한다. 작가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유화와 수채화를 비롯해 파스텔, 추상화, 펜화 등 총 5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탄탄한 구상력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색채 표현의 유화와 수채화, 따뜻하고 부드러운 터치와 파스텔 작품, 그리고 형상을 넘어 자유로운 선과 면의 조화를 담은 추상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Grace Kim 작가는 "이민자로 살아가며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를 그림을 통해 다시 만났다"며 "캔버스 위에 색이 머무는 순간마다 느꼈

던 위로와 기쁨이 관객들에게도 따뜻하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개막을 기념하는 오프닝 리셉션은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관람객들이 작가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문의: 323-272-3399(EK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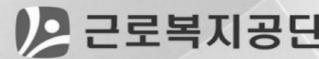
토마스 멩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 안정적인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제119차 세계선교연대 포럼 개최... 복음통일·세계선교 비전 나뉜

전 외교관 채원암 장로 "10년 이내 남북통일 될 것"

세계선교연대(WMN)가 최근 제119차 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복음통일과 세계선교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일 서울 명동 서울프린스호텔 컨벤션홀 2층에서 진행된 포럼에서는 전 외교관 채원암 장로가 'MAGA 정책 이해와 복음통일'을 주제로 강의했다. 채 장로는 "저는 10년 이내로 남북통일이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통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및 사상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념관을 교회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원암 장로는 1968년 외무부에 첫발을 디딘 이래 1977년 주이탈리아대사관 부영사, 1989년 주베를린 총영사관 영사, 1995년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주베를린 총영사관에 부임한 지 두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이후 남북통일을 위해 힘썼다.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 석사(1971년), 파리7대학 국제정치학 석사(1984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석사(2001년) 과정을 마쳤다.

채 장로는 먼저 "오늘 본문인 계시록 1장 8절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 구절로, 세계 정세·역사·정치경제 등을 기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잘

인용되는 구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대중국과의 패권 전쟁 및 관세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중공 다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및 미국 우선주의로 제조업을 살리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 회의를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백악관 만찬에 전국 목사님들을 불러 기도를 받는 등 복음주의자다. 이 하나만으로도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및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한 한국의 대미 협상 카드로 균형 유지보수·정비(MRO), 원전 건설, 방위 산업,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이란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란의 역사와 1970년대 상황, 2020년대 현재 경제, 정치 상황 등을 비교하여 소개하기도 했다. 채 장로는 "이란은 과거 세계 최초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대단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남북한 영토의 7배, 원유 매장량 세계 3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인 대단한 나라"라며 "그런데도 1979년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약 2,500달러, 지금은 약 5,600달러밖에 안 된다"고 말



채원암 장로가 강의했다. ©이지희 기자



이날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계선교연대

했다. 이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979년 1인당 GDP가 약 1,700달러, 지금은 약 36,000달러가 되었다"며 "이란의 통계는 지난 47년간 이란의 이슬람 신정정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37년간 통치하다 (지난 28일 미국, 이스라엘 공습으로) 죽었다"며 "종신 최고 종교 지도자에게 주는 호칭인 '아야톨라'는 헌법과 대통령 권한, 국회 의결도 비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미국이 잘못된 공격을 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장로는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 성장의 한계와 중국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부채 급증, 중국 지도부의 부정부패, 빈부격차 심화, 중진국 함정에 빠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이 저서 '100년 후'에서 2040~2050년 경에 중국이 분열될 것으로 예견했다. 중국은 구조론이 무너졌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무너져 최소 7~8개 국가로 분열될 것으로 본다"며 "독재정권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채 장로는 특히 "저는 주베를린총영사관 영사로 부임한 지 두 달 만에 1989년 11월 9일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남북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쫓 추적해 왔다"며 "남북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가 뜨거운 화제인데, 저는 10년 내로 다가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 장로는 "1907년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장대한교회가 있던 만수대에 현재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다"며 "(통일이 되면)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기념관 등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떼어내고 십자가를 달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김주덕 장로(명동국교회, 국제선교신문 사장)의 찬양인도와 강창렬 목사(세계선교총회신학원 원장)의 1부 예배인도로, 고종욱 장로(한국시만단체연합 총재)의 대표기도, 찬양사역자 김보미 전도사의 특송, 조운하 전도사의 바이올린 연주로 진행됐다. 또 전 외교관 채원암 장로의 설교 및 강연에 이어 유정미 가나 선교사의 헌금기도, 찬양사역자 정영은 전도사의 헌금송, 김주덕 장로의 광고 후 세계선교연대 이사장 이선구 목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이사장, 지구촌나눔재단 이사장)의 축도

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선교포럼 및 사역소개는 세계선교연대 대표 최요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찬송 '은 세상 위하하여'를 합창해 불렀으며, 축사와 인사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선구 이사장은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길 바란다. 또 뜨겁게 사랑해서 복음 전파에 큰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효용 전 대전신학대학교 대학원장(아자바스선교회 대표), 박재천 목사, 황선희 우간다 선교사, 이형우 일본 선교사, 양주림 멕시코 선교사, 권바나바 선교사, 유정미 가나 선교사, 홍시환 캄보디아 선교사, 장정욱 태국 선교사 등이 사역소개를 하고 최태선 목사(샘물교회)의 인도로 복음통일과 세계선교 등을 위해 뜨겁게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요한 대표는 "올해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 창조적이고 믿음의 말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세계선교연대는 이날 참석한 각국 선교사와 목회자, 성도 등 60여 명에게 최근 발간된 최요한 목사의 저서 '하나님 바로알기'와 이선구 이사장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식사를 제공했다. 제120차 세계선교연대포럼은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명동 서울프린스호텔 컨벤션홀 2층에서 진행된다. 이지희 기자

안보칼럼 ㉞ 국가안보와 호환(5)

한일 경술국치 5가지 조약, 영일동맹(1)



이병희 목사

영국과 일본이 맺은 1902년의 동맹은 일본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결국 대한제국을 일본의 속국화로 이끄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정식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제2차 영일동맹의 전문은 한국의 독립, 영토보전 보장이 삭제되고,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일제는 러일 전쟁을 가능하게 했고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고 외교권을 가져갔다.

영일동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에서 양국은 청나라와 한국의 독립을 서로 증언했다. 영국은 청나라에서, 일본은

청국과 한국에서 정치, 상업상 각별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익을 침해당하면 필요불가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제2조는 어느 한쪽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제3국과 전쟁을 개시할 때는 다른 한쪽은 엄중 중립을 지키는 다른 나라가 동맹국에 대한 교전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3조는 상기 경우에 다른 나라가 동맹국에 대한 교전에 가담하는 때에 다른 한쪽은 동맹국을 지원하고 교전에 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6조에서는 본 협약이 5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했다. 이는 이후 10년으로 연장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약하고 불안정한 나라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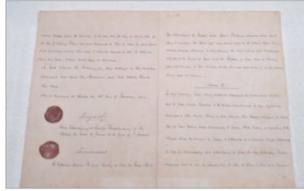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필립 토우는 19세기 말 조선의 쇠약이 영일동맹과 일본의 조선 지배를 가져왔다고 주

장했다. 로이터통신 기사를 거쳐 영국 외무성에서 4년 간이나 일한 토우 교수는 현장을 잘 아는 국제 정치학자였다.

당시 영일동맹으로 영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할 이유에 대해, 조선을 돌아본 언론인과 여행가들은 "조선은 너무나 부패해서 국력이 약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나라"라고 정보를 제공했다.

세계를 제패한 영국이 일본을 동맹국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 19세기 말부터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의 해군력이 증강되면서 영국 해군의 우위를 위협했다. 러시아는 영국의 발명품인 철도를 시베리아에 부설해서 만주에다 군대와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았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



일본 외무성이 소장한 1902년 1월 30일에 체결된 영일동맹 문서 ©위키미디어

된 후, 일본의 위협과 친일 내각의 강압적인 정책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1896년 2월 11일부터 1년간 비밀리에 거처를 옮기고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의지한다.

그러자 러시아의 한국 진출을 꺼린 영국이 일본의 손을 잡아준 것이다. 사실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했지만, 영국은 러시아와 1907년 화해협정을 맺었다. 한국은 단기간에 외교 게임에 희생된 것이다. 러시아가 아니고 당시 어느 나라에 의존했어도 마찬가지였다. 고종은 좀 더 일찍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에 어느 정도

대항할 힘이 있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영일동맹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단 한 가지이다. '국가안보'가 제1이라는 것이다. 당시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보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하다.

1902년 새해 첫날 네 차례나 일본의 총리를 지낸 노정치가 이토 히로부미가 하야시 나다스 주영 일본 공사사의 안내를 받으며 헨리 렌스다운 영국 외무장관 사저인 보우드하우스를 찾아왔다. 이토는 당시 러시아와 동맹을 논의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직후였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이토는 렌스다운 영국 외무장관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러시아와 동맹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중 플레이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년초 휴가 시즌에 노정각이 정성을 다해서 상대국의 사저까지 찾아가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진짜 외교인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은 정치적 논리 때문에 외교관들이 국익을 위한 외교능력이 상실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런던 패신턴 역에서 가차로 시간 15분 거리의 영국 서남부 윌트셔셔군의 작은 마을 칼튼이 있다. 나지막한 언덕과 숲에 둘러싸인 보우드호텔 1층 대기실에는 진홍빛 가운데를 걸친 헨리 렌스다운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이 초상화는 1959년 인도 대통령이 보냈다고 한다. 헨리는 외무장관이 되기 전에 캐나다와 인도총독을 지냈다.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보우드하우스에는 이토와 하야시의 방문을 기념한 낡은 서명록이 보인다. 당시 영일동맹에 참여한 렌스다운 장관과 하야시 공사의 사진을 나란히 걸고, 영일동맹은 영국 정부의 가장 커다란 업적이라고 보도한 신문이 스크랩되어 있다.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의지한 조선의 결정은 영국의 러시아 견제 정책으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도록 승인하고 지원하게 된 것이다.

〈계속〉 이병희 목사(☎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6.25역사기념연대 역사위원장)

우리의 행복이 일상이 되도록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ESG 경영.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 수소 밸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대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구례, 봉화)
- 해외 운영사업장
발전5사 중 1위
(11개소)
-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

보수 성공회 연합체 가프콘, 수장 임명 대신 글로벌 성공회 평의회 출범

지도 체제 대대적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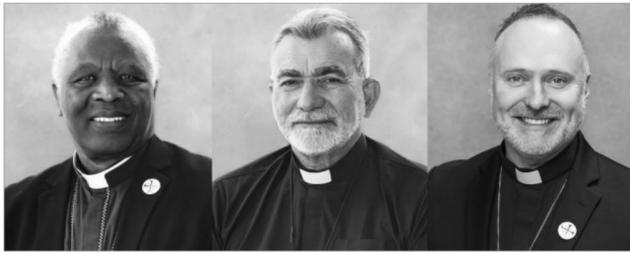
보수 성향의 성공회 연합체인 가프콘(GAFCON)이 수장을 의미하는 '프리무스(primus)'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새로운 지도 구조로 '글로벌 성공회 평의회(Global Anglican Council)'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평의회는 가프콘(GAFCON)이 최근 출범시킨 '글로벌 성공회 공동체(Global Anglican Communion)'를 이끌게 된다. 이는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가 점점 더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가프콘이 캔터베리 주교의 영적 지도력을

거부하게 되는 배경이 됐다.

최근 아부자(Abuja)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프콘이 새로운 프리무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신 2008년 창립 이후 운동을 이끌어온 '가프콘 대주교 협의회(Primates Council)'를 해산하고 글로벌 성공회 평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평의회 초대 의장에는 로랑 엠반다(Laurent Mbanda) 대주교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미겔 우초아(Miguel Uchoa) 대주교, 사무총장에는 폴 도니슨(Paul Donison) 주교가 각각 선출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아테네에서 열릴 예정인 다음 주요 가프콘 총회까지다. 도니슨 주교는 새로운 평의회가 대주교



(왼쪽부터 순서대로) 로랑 엠반다 대주교, 미겔 우초아 대주교, 폴 도니슨 주교. ©Gafcon

와 자문위원, 보증인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주교와 성직자, 평신도 가운데서 선출되고 모두 동일한 투표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의회 중심의 지도 체제를 선택

한 배경에 대해 기존 구조와의 결별이 필요했다고 밝히며 이를 "가프콘에게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도니슨 주교는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과 개인이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는 데 관

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프콘 대주교 협의회는 글로벌 성공회 공동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나누기로 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된 평의회는 전 세계 성공회 지도자들, 즉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와 권위를 공유하려는 대주교들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평의회 의장은 대주교 가운데 한 명이 맡게 되지만 '동등한 자 가운데 첫 번째(primus inter pares)'라는 지위는 갖지 않게 된다"며 "현재의 성공회 공동체 구조가 전 세계 대다수 성공회 신자들의 필요를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글로벌 성공회 공동체는 공의회적 구조에 의해 운영될 것"이

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구조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직함 역시 뒤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공회 매체 앵글리칸 잉크(Anglican Ink)를 통해 아부자 회의를 취재한 조지 콘저는 이번 결정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져 대표단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참석자들이 프리무스 선출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콘저는 이러한 방향 전환이 "경쟁적인 구조를 만들지 않으므로 캔터베리 대주교와 기존 성공회 공동체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경 기자

영 법원, 우크라이나 정교회 지지 의원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종교 자유 침해 우려"

영국 법원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정교회(UOC) 지지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인사는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자 우크라이나 정교회 부제(Subdeacon)인 아르템 드미트루크(Artem Dmytruk)는 러시아 정교회(ROC)와의 연계 의혹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금지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해 왔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 직후 독립을 선언했다. 러시아 정교회가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한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부 모두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와의 관계를 실제로 완전히 단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드미트루크 의원은 2024년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발언을 한 유일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의회 연설 이후 경호 인력이 철수됐으며, 검찰은 과거의 폭행 혐의를 다시 제기했다.

드미트루크는 이후 몰도바로 도피한 뒤 영국으로 이동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친러 성향 인사들에 대한 암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여기에는 친러 성향의 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일리아 카바(Илія Ківа)와 친러 관료 미하일 필리포네펬코(Mikhail Filiponenko)가 포함된다.

러시아의 대응 기관인 연방보안국(FSB) 역시 크렘린 비판 인사들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드미트루크 의원과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함께 대리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앤 파트너스 LLP(Amsterdam & Partners LLP)의 로버트 암스테르담(Robert Amsterdam) 변호사는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이 우크라이나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인정한 결정적 승리이며, 특히 종교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드미트루크 의원은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2022년 3월 러시아에 맞서 자신의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지역 방위 부대를 조직해 직접 무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명경 기자

레바논 미사일 공격으로 3만 명 피난... 교회 "인도주의 위기 심화 우려"

최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Beirut)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약 3만 명이 가까운 주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으로 2024년 말 이후 유지돼 온 취약한 휴전도 사실상 붕괴됐다.

가톨릭 구호단체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에 따르면, 3월 2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레바논 수도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오전 2시 30분경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10차례 이상의 공습이 이뤄졌다. 폭발음은 케사르완(Keserwan) 지역까지 들렸으며, 레바논 남부와 베카 계곡(Beqaa Valley)에서도 추가 공습이 보고됐다.

ACN에 따르면 약 50개 마을에 대해 경고가 내려지면서 수천 가구가 차량을 이용해 긴급히 피난길에 올랐다.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 남부 교외를 빠져나가는 주요 도로를 곧 극심한 정체로 빚었고, 많은 가족들이 수 시간 동안 도로에 발이 묶였다.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 사이다(Saida)에서 ACN과 통화한 멜리트 그리스 가톨릭 교회의 엘리 아디드(Elie Haddad) 주교는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다"며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사이다 자체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공공 건물이 임시 대피소로 전환됐다. 국립학교들은 피난민 가족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교구 센터들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폭력 사태의 재확산은 주말 동안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중

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발생했다. 해당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여러 이란 고위 인사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최근 몇 달간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북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상황 속에서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레바논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인도주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레바논 남부 타이레(Tyre) 교구의 멜리트 주교는 폭력이 계속될 경우 자신의 교구에서만 약 800개의 기독교 가정이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칸다르 주교는 "사람들은 지쳐 있다"며 "자녀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지역 교회의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고한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이라며 "그들의 고통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인간의 존엄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티르 지역의 마론과 주교 차르벨 아달라(Charbel Abdallah)는 많은 주민들이 아직은 고향에 머물고 있지만, 국경 인근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점차 떠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바알베크(Baalbek)-데이르 엘 아흐마르 교구의 마론과 주교 한나 라흐메



베이루트 부르스 함무드 지역의 전선 옆에 걸려 있는 나무 십자가. ©Aid to the Church in Need

(Hanna Rahme)는 바알베크 지역의 무슬림과 기독교 가정들이 데이르 엘 아흐마르(Deir El Ahmar)로 피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전 충돌 당시 피난처로 사용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교회와 학교, 특히 성 노라 교회(St Nohra Church) 등은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사실이 이미 수용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라흐메 주교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Zboud의 '선한 봉사'의 수녀회(Sisters of the Good Service)가 운영하는 학교에는 현재 약 100명이 피난해 있으며, 수녀 조이슬린 주마는 "건물이 이미 가득 찼다"고 전했다.

그녀는 "지금은 안전하지만 곧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교구는 폭력이 더욱 심화될 경우

식량과 긴급 구호 물품, 피난민 지원을 위해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 구호단체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이 단체의 중동 정책 책임자인 윌리엄 벨(William Bell)은 "영국 정부는 지역의 인도주의적 고통이 통제 불가능한 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전쟁을 즉각 끝내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 주교인 굴리 프랜시스-드퀴니(Guli Francis-Dehqani)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중동 지역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번 공격과 그에 대한 보복은 이란과 중동 전역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포와 불확실성, 그리고 파괴를 가져왔다"며 "더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갈등 속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경 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에서 만들어갑니다.

“박해 속에서도 신앙 지키는 아프간 여성 이야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공개되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의 삶이 조명되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심각한 폭력과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종교적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는 환경 속에서 신앙을 바꾸는 것은 더 큰 위협을 동반한다. 아리아나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선택권이 거의 없는 사회 속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우리 지역에서는 남성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은 그들에게 복종해야 했다”며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도, 교육을 계속할 자유도 거의 없었다”고 회상했다.

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리아나 역시 가족의 결정에 따라 결혼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시댁 식구들이 비밀리에 기독교 신앙을 지켜 온 신자들이었던 것이다. 가족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피신한 뒤에야 아리아나는 그들의 신앙을 알게 됐다. 시댁 가족은 과거 러시아 출신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에게 함께 교회를 가자고 권했다. 그 과정에

서 아리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신앙이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얼마나 위협한 선택인지도 깨닫게 됐다. 아리아나는 “여성들이 종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성폭력이나 구타를 당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그녀는 고향을 떠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안전이 완전히 보장된 상황은 아니다. 가족과 함께 다른 나라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든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리아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슬람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받은 신앙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아리아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을 다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경험하길 바란다”며 “생명의 소금을 맛보고 생명을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아리아나는 난민 여성들을 만나 성경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그들 중에는 무슬림도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 말씀을 나누면 ‘당신이 오면 평안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아리아나는 모든 사역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이 일 자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아프가니스탄 성도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짐바브웨 교회 지도자들,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 헌법 개정안에 우려

기독교 지도자들 공동 성명 헌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약화시킬 수 있다 경고

안된 헌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의지를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적 책무를 상기시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국회는 국가 공동체의 선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신성한 신뢰의 기관”이라며 “정치 권력을 연장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3년 헌법 이후 이어지는 헌정 질서 논쟁

미국 크리스천데일리 인터내셔널(CDI)은 짐바브웨의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 임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의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음을 9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국가 헌법의 본질적 가치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요청하며, 정치 권력의 확대를 위해 헌법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머슨 음벵가과 짐바브웨 대통령

CDI는 짐바브웨의 현재 헌법은 집권 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수년간 이어진 국가적 대화 과정을 거쳐 2013년에 채택됐다고 밝혔다. 당시 교회들은 평화적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성명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반드시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제도나 대통령 권한과 같은 핵심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와 광범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회 지도자들은 해당 헌법 개정안이 국가의 정치 구조와 선거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 선출 방식과 정치 지도자의 임기 체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선제 변경과 정치 지도자 임기 연장 논란

CDI는 논란이 되는 헌법 개정안에 짐바브웨의 대통령 선출 제도를 기존의 직선제에서 의회 중심의 선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에서는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행정 권한을 위임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5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 주기를 7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치 지도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짐바브웨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민주주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

성명은 “헌법은 국민이 함께 맺은 사회적 약속”이라며 “어떠한 개정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짐바브웨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성명에서 교회가 국민의 복지와 공동선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은 “교회의 역할은 국가가 의로움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 모두가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보다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공동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짐바브웨의 헌법 개정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평화로운 대화와 공공의 토론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국가의 미래는 공적 신뢰에 대한 정직함과 책임성, 그리고 공공 권력에 대한 성실한 관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를 거쳐 본격적인 심의와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짐바브웨 교회 지도자들은 헌법 개정 전부를 계속 주시하면서 모든 헌법 개정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연 기자

아르헨티나 차코주 복음주의 교회 90주년 기념... 주지사 참석

파마 숨머 교회, 지역 신앙 공동체 중심 역할 조명... 2018년 역사·문화유산 지정

미국 크리스천데일리 인터내셔널(CDI)은 아르헨티나 차코(Chaco)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복음주의 교회가 설립 9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6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차코주 주지사 레안드로 즈데로(Leandro Zdero)는 지난 1일 차라타(Charata) 인근 차카부코(Chacabuco) 지역에 위치한 파마 숨머(Pampa Sommer) 복음주의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9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파마 숨머 복음주의 교회는 로베르토 모리츠(Roberto Moritz) 목사가 담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교회의 첫 예배당이 세워진 지 9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들과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90년 동안 교회가 지역 사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수행해 온 역할과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지역 가족들에게 신앙적 위로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심 공동체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교회 역사 돌아보는 예배와 기념 프로그램 진행

90주년 기념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90주년 기념 예배와 주요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 예배가 진행됐다. 예배에서는 교회의 설립 배경과 성장 과정,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역사 등이 소개됐다.

또한 교회의 발전 과정과 주요 활동을 담은 기관 영상이 상영되며 교회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랜 기간 교회를 섬겨 온 성도들도 무대에 올라 교회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끼친 영적·사회적 영향에 대해 간증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교회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차코주 문화·역사 유산으로 지정된 복음주의 교회

파마 숨머 복음주의 교회는 그 역사적 가치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 차코주 의회로부터 역사·문화 유산으로 지정됐다.

차코주 의회는 교회가 지역 사회 형성과 공동체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아르헨티나 차코주 주지사 레안드로 즈데로(오른쪽)는 차라타(Charata) 농촌 지역에 위치한, 로베르토 모리츠 목사가 이끄는 파마 숨머 복음주의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설립 9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Government of the Province of Chaco

왔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기 정착민 가정들이 지역의 신앙과 사회적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 유산 지정의 주요 배경으로 평가됐다.

현재 이 교회는 차코주 농촌 지역에서 역사적 신앙 공동체로 자리 잡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정치적 지지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주지사 “신앙 공동체와 지역사회 위한 헌신 높이 평가”

행사에 참석한 레안드로 즈데로 차코주 주지사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을 높이 평가했다. 즈데로 주지사는 이날 행사가 매우 감동적인 자리였으며 “이 교회가 단순히 신앙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연대와 공동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동체의 가치와 가족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회가 이러한 가치를 지역사회 안에서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과거 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해당 교회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던 개인적인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차코주 지역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 기념 행사 참석

이날 행사에는 차코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종교계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교회의 90주년을 기념했다.

차코주 정부부 장관 훌리오 페로(Julio Ferro), 차라타 시장 루벤 라치(Rubén Rach), 상원의원 실바나 슈나이더(Silvana Schneider), 종교 업무 조정관 파블로 파레데스(Pablo Paredes) 등이 참석해 교회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기렸다.

참석자들은 파마 숨머 복음주의 교회가 지역사회 형성과 신앙 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 광역접근성 우수
-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후 이란 핵 정책·대미 외교 노선 향방 주목

핵무장 가능성과 대미 협상 가능성에 국제사회 촉각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지원 속에 모즈타바 하메네이(사진)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서 이란 핵 정책과 대미 외교 노선의 향방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친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그는 이란 권력 구조 내부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혁명수비대와 보수 강경파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고지도자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지도 체제 아래에서 이란 핵



정책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 시간) 보도를 통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권력 승계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베일에 싸인 인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1979년 이란 혁명은 세습 왕정을 타도한다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지만, 이번 최고지도자 선출 과정에서는 부친의 사망과 정치적 상징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부친이 미국과 이

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서사가 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전하며, 새 지도자가 전임 지도자의 노선을 계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체제 출범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이란 핵 정책의 향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새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03년 대

량살상무기(WMD)를 금지하는 종교적 칙령인 파르와를 선포하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이란 전문가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시작된 군사적 충돌이 오히려 실제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스라엘의 사실상 핵 보유를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란이 공식적으로 핵

무기 개발을 선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체제의 또 다른 관심사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혁명수비대와 강경 보수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은 만큼 기존의 대미 강경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명수비대와 보수 진영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한 만큼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인 압둘라자자 다바리지는 미국과 긴

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모즈타바라며, 다른 인물이 비슷한 시도를 할 경우 보수 세력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 제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하면서도 이번 지도자 선출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선출이 동일한 문제를 계속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은 내부 인사가 지도자가 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체제 출범 이후 이란 핵 정책과 대미 외교 전략의 변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홍은혜 기자

주한미군 패트리엇 반출에도 ‘대북 억지력 문제없다’... 이 대통령 “자주 국방 역량 갖춰야”

국무회의서 방공무기 중동 이동 언급...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수준, 외부 지원 없어도 방위 가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방공무기 이동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

는 사안이라며 자주국방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한 미군 방공무기 이동과 관련한 정부의 입

장을 설명했다. 그는 주한 미군의 장비 이동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우려를 전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을 한국의 의지대로 관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주한 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나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군사력과 국방비 수준 강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 능력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규모와 군사력 평가를 언급하며 한국이 충분한 방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객관적으로 국제 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 총액이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보다 약 1.4배 많은 점을 언급하며 재래식 군사력 격차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 능력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의 기본 원칙으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보를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어딘가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비 지출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 마찬가지로. 당장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핵이라도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질서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의지와 다른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은 최근 주한 미군이 운용하던 패트리엇 미사일 등 일부 방공무기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이런 장비 이동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에 따른 조치이다. 그는 한국군의 사기와 책임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방위 역량에 대한 신뢰도 나타냈다. 그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구급약인 활명수

반국민이 의 기공전 선기정 민승훈을 양선수 우승 축하
건국헌정 70주년 기념으로 활명수 100만 개를
건국헌정 70주년 기념으로 활명수 100만 개를
건국헌정 70주년 기념으로 활명수 100만 개를

藥 賜 胃 急 救
水 命 活
수 명 활

活命수를
服用합시다

地 帶 五 町 泉 和 磨 城 京
房 藥 和 同
九 一 七 二 光 新 德

孫基順、南昇龍兩選手優勝祝賀
健康한體力、堅忍不拔하는耐久
力に根源은 오직健康한朝鮮을目標하고
胚胎된다 健康한朝鮮을目標하고
다 갖치胃腸을健全케하기爲하여

牛島男兒의意氣衝天
孫基順、南昇龍兩選手優勝祝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동화약품

여야, 12일 국회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우선 처리 합의

민생개혁 법안 약 60건 함께 처리 추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이견 지속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

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수석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한 민생개혁 법안 약 60여 건도 함께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목록은 추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약 6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정책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활동 기간 마지막 날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다만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국민 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 입장 변화가 없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식 상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진행될 전망이다. 전준호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진성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국 기자

박사 학위 취득자 역대 최대 2만명 육박 연봉 2000만원 미만 ‘박봉 박사’ 증가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새로 받은 인원이 2만명에 가까워지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연봉 20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박봉 박사’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원은 총 1만98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5년 1만 3077명과 비교하면 약 51.6% 증가한 규모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9년 5586명에 불과했던 박사 학

위 취득자는 201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지난해 2만명에 육박했다. 여성 박사 학위 취득자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2000년 여성 박사 학위 취득자는 1258명으로 전체의 20.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629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이유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박사 학위 신규 취득자 1만4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성 향상’이 37.5%로 가장 많았고, ‘교수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5.5%로 뒤를 이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교수나 연구원 진출 목적이 4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박사 학위 취득 동기가 점차 다양해지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박사 학위 취득 후 취업한 7005명 가운데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4%로, 2011년의 6.3%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전공 분야별로는 예술 및 인문학 분야에서 연봉 2000만원 미만 비율이 2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 19.0%, 사회과학 14.9%, 농림축산 및 수의학 11.1%, 서비스 분야 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나래 기자

전쟁 속에 발이 묶인 두바이에서 얻은 일곱 가지 깨달음

미국 크리스천데일리 인터내셔널(CDI)은 보르투스 만수르 사무총장(사진)의 기고글인 '전쟁의 시기에 두바이에 머물며 기록한 일곱 가지 성찰'(Seven reflections from Dubai, stranded in a time of war)을 6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보르투스 사무총장은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히브리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나사렛 침례학교 총괄 디렉터와 교회 지도자로 섬기면서 이스라엘과 성지 지역의 복음주의 교회 연합 및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필자는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Movement Day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과 두바이의 영공이 모두 폐쇄되었고,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외국인 참가자들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 발이 묶인 채 지내야 했다.

그 며칠을 보내는 일은 매우 비현실적인 경험이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아랍 남녀였고, 여기에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복음을 섬기는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대형 교회의 담임목사들, 복음주의 연맹 지도자들, 그리고 국제 기독교 단체의 책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4일 동안 함께 머물게 되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 모임을 갖고, 함께 예배하며, 설교를 들었다. 또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휴식을 취했으며, 가끔 호텔 주변을 짧게 산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바이 자체가 공격의 잠재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간절

한 마음이 컸다. 우리는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필자는 결국 예정된 귀국일보다 4일 늦게 요르단을 거쳐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기회가 생기는 대로 며칠 뒤 차례로 떠났다.

Movement Day Dubai의 주최 측은 매우 친절했고, 그 불확실한 기간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 주었다.

이란은 자신들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도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가운데 두바이도 있었다. 화려함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이 도시는 갑자기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격받게 되었다. 사실 두바이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이렌과 대피소가 일상적인 대피 체계의 일부이지만, 두바이에서는 많은 건물에 대피소가 없었고 경보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그 특별한 며칠 동안 필자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그 가운데 일곱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1. 전쟁이 남기는 깊은 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온 우리에게 그리고 아마 중동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깊은 고통과 낙심을 가져왔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마스나 이스라엘 전쟁의 여파에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그 전쟁은 많은 삶을 멈추게 했고, 특히 가지자구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분쟁의 땅을 잠시 떠나 평화롭고 화려한 도시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기에 그 대비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두바이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안, 고향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붙든다: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다"(시편 34:18).

2.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경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친구들로

부터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상황을 묻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필자의 첫 반응은 스스로도 놀라웠다. 필자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지쳐 있었다. 오히려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원했다. 물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신실한 기도자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작동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바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린도전서 12:26)고 말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떠받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 떠받쳐진다.

3. 편안함과 그리움의 역설
우리의 상황에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우리는 편안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고, 모든 비용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부담했다. 발이 묶인 방문객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루 세 번 풍성한 뷔페 식사를 했고, 넓은 객실과 세심한 서비스도 제공받았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집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편안해도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비록 중동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이란 사이렌과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을 의미할지라도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위험 속에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 경험은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난민이나 피난민들이 느끼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해주었다.

4. 권력과 번영의 연약함
두바이는 세계적인 번영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명품 브랜드, 화려한 건축물, 끊임없는 활동으로 가득한 도시다. 그러나 그 며칠 동안 도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도시의 일부 지역이 그렇게 조용한 모습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매년 약 9천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공항도 거의 비어 있었다.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 출발했을 때 활주로는 마치 텅 빈 들

판처럼 보였다.

그 순간 다윗의 말이 떠올랐다: "어찌하여 용사가 전쟁 중에 앞도려졌는가"(사무엘하 1:25). 아무리 인상적인 도시라도 취약할 수 있다. 인간의 성취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5. 속도를 늦추는 선물
우리 그룹에 있던 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매우 체계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프로그램과 예배, 회의와 컨퍼런스로 가득 찬 일정 속에서 항상 결과와 활동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립은 우리를 천천히 살도록 강요했다. 뻘뻘한 일정이 사라지자 우리는 오랫동안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예배 모임을 갖는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순간들이 컨퍼런스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사도행전 2:42). 이러한 속도 조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공동체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6. 평화를 만드는 사명
우리 지역에서 반복되는 전쟁의 계절은 필자에게 한 가지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평화를 이루는 일이 기독교적 증언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화해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불리며,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마태복음 5:9). 복음주의자들은 대화를 장려하고, 가능한 곳에서 화해를 추구하며, 복음이 영원한 삶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

7. 끊임없이 아는 것의 부담
많은 사람들은 휴대폰에 특정 앱을 설치해 두는데, 고향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알람이 오도록 되어 있다. 해외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두바이에 있는 동안에도 그 알람은 계속 울렸다. 때로는 새벽에 날카로운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다. 고향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대피소로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앱을 삭제할 수도 있었겠지만,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희미하게도 몇몇 사람들은 호텔로 나가 활동하기도 했다. 그들은 멀리서 폭발음을 듣기도 했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 갔다. 역설적으로 끊임없는 알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다.

물론 경고를 무시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불안함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

8. 결론
돌아켜 보면, 그 예상치 못한 고립의 시간은 일종의 예상치 못한 영적 수련화와도 같았다.

끊임없는 회의와 행사, 책임 속에서 살아가던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늦추게 되었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도, 끊임없는 정보도 줄어든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끊임없이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활동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이 경험은 성경의 지혜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편 46:10). 역설적으로 덜 알고 더 말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분명한 사야를 얻게 된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합은 더욱 깊어졌고, 우리의 시선은 다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갔다.

어쩌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음에서 오는 힘으로 끊임없는 알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다. 최승연 기자

중동 분쟁 속 아동 보호 촉구... "민간인 안전과 인도적 지원 접근 보장해야"

월드비전 중동 분쟁 성명 발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최근 중동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아동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월드비전은 이번 성명을 통해 중동 분쟁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민간인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분쟁과 정치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아동과 가족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미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강제 이주,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던 지역사회에서 최근 상황 악화는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비전은 성명을 통해 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단순한 물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 중단과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 심리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와 병원과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분쟁 상황에서도 아동의

존엄과 권리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이번 성명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국제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 접근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월드비전은 분쟁 당사자들이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즉각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민간인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와 병원 등 필수적인 민간 인프라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비전은 이러한 시설이 아동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쟁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아동의 교육과 건강,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아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중동-동유럽 지역 총괄 책임자인 엘리노어 몬비엣(Eleanor Monbiot)은 중동에서 이어지는 폭력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승연 기자

문비엣 책임자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아동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안전과 권리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 상황 속에서 아동이 겪는 공포와 불안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아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비전은 특히 아동과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중동 분쟁 상황에서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집과 학교에서조차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월드비전이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아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이번 성명을 통해 중동 분쟁 상황에서 아동 보호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환기했다. 또한 분쟁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이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ONE OF NOT MANY.

중국 교회가 보여 준 복음 전도의 본질: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증언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브렌트 폴턴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중국 교회의 사례는 참된 신앙의 증언이 단순히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 이상의 것임을 보여 준다.(The Church in China example reveals effective witness is more than proclamation)를 4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브렌트 폴턴 박사는 ChinaSource의 창립자로, 2019년까지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그는 중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멤버 케어 전문가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종교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중국에서 복음이 전해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1970-80년대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중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은 단순히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신앙은 삶의 더 깊은 차원에서 표현되며, 바로 그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된다. 최근 다시 공적 복음 선포의 기

회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삶으로 드러나는 증언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있다.

◆전염되듯 확산된 복음
문화대혁명 이후 1970년대 중국 농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매우 빠른 속도의 전도를 특징으로 했다. 젊은 신자들이 들쭉 짝을 지어 전국 각지로 파송되었고, 그들은 농가에서 부흥 집회를 열고 외딴 마을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다. 개인적인 신앙 간증과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들이 복음 확산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홍콩의 기독교 지도자 김광찬(Kimkwong Chan)은 『Witnesses to Power: Stories of God's Quiet Work in a Changing China』라는 책에서 남중국인의 은밀한 교사 천샤오잉(Chen Shaoying)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천은 병원에 입원한 딸을 돌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 다른 환자의 친척이 그의 딸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제안하자 천은 호기심을 느끼고 그 신앙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자리에서 천과 그의 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교회도, 알려진 기독교인도 없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천은 새롭게 얻은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 모임이 형성되었고, 2년 만에 다섯 개의 모임에서 150명 이상의 새로운 신자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 모임들은 계속 성장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늘었다. 결국 강경한 종교사무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과 동료 신자들은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었다.

홍콩에서 초청받은 김 박사는 새로 세워진 교회를 돕게 되었고, 최근 회심한 신자 60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특권을 누렸다. 이후 10년이 지나자 두 개의 큰 공동체와 수많은 소규모 모임에 1,000명이 넘는 세례 받은 신자들이 모이게 되었다.

◆도시화 속에서 확장된 복음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는 또 다른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특히 해외에서 온 기독교 영어 교사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 대학 캠퍼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자신의 친구들과 동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새로운 신앙 공동체들이 형성되었다.

한 도시 교회 목회자는 젊은 시절 기숙사에서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그 학생은 차분히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질문에는 거절했다. 목회자가 방을 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위쪽 침대에서 졸던 얼굴 하나가 내려다보였다. 그 학생의 룸메이트였다. 그는 그동안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곧바로 말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중국 그리스도인

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의 증언은 단순한 선포를 넘어선다.

◆삶으로 드러나는 진리
샤오리 양(Xiaoqi Yang)과 대릴 아일랜드(Daryl Ireland)는 『Chinese Christian Witness』에서 복음 전파를 단순히 말로 전달되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서구 계몽주의적 관점은 중국에서 신앙이 확산된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조직에 속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 제자들은 증인이 될 것이며 그들의 증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 넓은 의미는 중국 선교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운 이웃든 먼 사람 앞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증언은 개인과 문화, 사회, 심지어 창조 세계까지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 교회의 증언은 단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있다. 오랫동안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문명 속에서 그들은 신실한 존재로 살아가며, 사회

의 가치와 관습과는 다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교회 개척자 찰리 왕(Charlie Wang)은 이를 "문화적 변증(cultural apologetic)"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이 참되기를 갈망하도록 만들 만큼 그 아름다움을 삶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ChinaSource의 안드레아 리(Andrea Lee)는 이렇게 표현한다. "교회가 은혜가 실제로 느껴지는 곳, 사랑이 조건 없이 경험되는 곳, 기쁨이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곳이 될 때, 그곳은 이 땅에서 하늘의 현실을 엿보게 하는 공간이 된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연합
많은 관찰자들은 중국의 미등록 교회가 겪는 박해에 주목하지만, 중국 교회의 증언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에서도 중요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6만 6천 개가 넘는 공식 예배 장소가 존재한다.

이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주요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에서 종교의 가시성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 속에서도 신앙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공식 교회의 증언은 교인들 사이의 연합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미등록 교회들에서는 교단주의가 다시 등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삼자예국운동(TSPM)의 신학교와 교회들은 여전히 다

양한 배경을 가진 신자들을 함께 모으고 있으며, 대부분 복음주의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연합이 정치적 필요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 진리를 함께 붙들면서도 다양한 전통을 인정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연합의 모습을 보여 주는 분명한 사례가 된다.

이러한 모습은 교리적 차이, 예배 스타일, 정치적 입장 등 다양한 이유로 쉽게 분열되는 서구 교회들이 더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변화된 삶이 만드는 증언
신실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월한 도덕적 주장이나 논리적 진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찰리 왕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이 참되기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아름다움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과 습관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진리를 증언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중국 교회가 오랫동안 보여 준 것처럼, 이러한 형성 과정에는 고난이 포함된다. 고난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

결과 변화된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말에 신뢰를 부여하고, 우리의 증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최승연 기자

황덕영 목사 “영적 전쟁에서 성도를 지키는 무기,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통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 강조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엡 6:13-16)는 글을 게재했다.

황 목사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서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가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소개하며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한다"며 "바울은 여러 무기 중에서도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믿음의 방패를 강조한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장비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취해야 할 무기"라고 했다.

이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선언"이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권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은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믿음 위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라고 했다.

그는 "첫째,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바울이 말한 방패는 문처럼 커서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투레오스(Thureos)'라는 큰 방패였다"며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다. 서운함과 상처, 비교와 열등감, 분노와 우울함, 염려와 절망이라는 화살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날아온다. 그대로 맞으면 마음은 불타오르고 하나님과의 교제



황덕영 목사. ©기록일보DB

는 약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준다. 무너지지 않게 한다. 끝까지 서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둘째,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라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단은

"꺾었다고 속삭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사탄의 패배를 선포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셋째,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방패는 가지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들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모두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순종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며 "특히 기도는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

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했다.

그리고 황 목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비로소 흥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며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열방을 섬기고 복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비전 역시 믿음의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며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어두운 세상을 낙하히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한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자금
-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공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 신비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대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



김창환 목사
서울 강서교회

“예수께서 흰옷과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입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정서적 상태가 극에 달했거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혈한 증(血汗症, hematirosis)으로, 사람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을 때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이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땀을 흘리게 되면 그 피가 땀과 함께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혈한증이 일어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지며 날이 살을 찌르는 듯한 심한 고통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으로 맞으셨을 때는 피부가 극도로 민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수차례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구타했는데 눈을 가리고 때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사람을 때리면 반사 신경이 작용할 수 없어서 날아오는 주먹이나 손바닥을 피할 수도 없고 스치듯 비껴가며 맞을 수도 없기 때문에 충격이 거의 2-3배 정도 더 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짐을 뱌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막 14:65).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얼굴 곳곳이 붓고 멍들고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입술도 터져서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조롱하며 짐을 뱌고 그 상처 난 얼굴에 뉘뉘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나니”(사 52:14).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죄수들이 기절하거나 마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태형(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비 형벌인 채찍질은 죄수의 옷을 벗겨 등을 들어내고 허리를 굽게 하여 기둥에 묶든지 틀에 달아 맨 다음 금속조각이나 날카로운 뿔

조각들 유리조각들이 달려있는 가죽채찍으로 사정없이 어깨를 시작으로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계속해서 내려치는 형벌입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태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장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당시에 로마의 예루살렘에는 유리공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도 유리조각을 달았던 거죠. 그 채찍으로 맞으면 채찍에 달려있던 것들이 살에 박혔다가 빠지면서 살점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고 핏줄들이 터지게 됩니다.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게 되고, 찢긴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달랑달랑 매달려 있게 되며 심지어 척추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장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태형만 당하고서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희생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며 저혈량성 쇼크(hypovolemic shock) 상태에 빠집니다.

저혈량성 쇼크란 말은 많은 량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내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장은 남아 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깨와 등 허리와 옆구리에는 많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9회의 채찍질만을 하는데 당시 로마 형벌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군인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고통과 출혈로 인한 쇼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마 27:26; 막 15:15).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흉포(자주색 옷 - 왕을 상징)를 입혀셨습니다. 출혈이 멎지 않은 상태에서 흉포에 예수님의 살이 닿아 피가 스며들어 저혈작용을 하면서 흉포가 살에 붙어 피와 함께 굳었습니다. 한 군인이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는데 그 가시가 머리와 얼굴 부위를 찢어 피부가 찢기고 찢려서 피가 철철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인이 조롱하며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찧었다고 합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갈대로 쳐서 그



가시가 피부 속 깊이 찔리게 하고 더 상처가 깊게 되며 얼굴은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일한 흉포를 다시 벗겨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난 살에 붙어 같이 굳은 흉포를 벗겨내자 굳었던 피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혀서 가시관을 얹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짐 뱌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마 27:28-31).

이어서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습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로 걸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는 34-57kg 정도의 횡목(십자가의 가로축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수차례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 일은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의 좁은 길을 따라 끌고다라 향하던 예수님은 몇 차례나 쓰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면부족, 채찍질, 심적고통으로 그의 육체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자, 로마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웠습니다(눅 23:26).

“갈고다에 다다른 후에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혀 못을 박았습니다. 이 때가 대략 주후 30년경 نيسان월(3-4월) 14/15일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약용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으나 입에 대기만 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주는 몰약이나 쓸개를 탄 포도주로 고통을 잊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죄수들에게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라고 그런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다 받으시려고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요 19:18).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때, 죄수에게 사용된 못은 길이 12.7-17.8cm, 지름 1cm 정도의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 요한 난 벤하롤의 십자가 처형당시의 못 발견된 날카로운 녹이 쓴 철대못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이 아니라 팔뚝 끝 부분과 손목뼈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손바닥이 찢어져 버려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언어는 손바닥과 손목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손목도 손바닥에 포함된 언어였습니다. 손목에 못이 박히는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로 그 신경은 손으로 나가는 가장 큰 신경인데 못이 그곳을 내리질 경우 그 신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못이 손목에 박힐 경우의 고통은 펜치로 그 신경을 잡고 비틀어서 몽개는 그런 고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고통을 이겨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야 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excruciating(고문하다)’이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excruciating은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동안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했습니까? 또 예수님의 발은 겹쳐진 채 십자가의 수직기둥 정면에 고정되었고, 못은 발 중앙의 둘째 뼈와 셋째 뼈 사이에 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발의 주 신경들이 끊기는 고통, 양손과 같은 발이 잘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형으로 받은 채찍질로 인한 출혈과 쇼크, 협압 저하 현상, 못을 박기 위

해 땅에 눌렸을 때 채찍질 당한 등이 다시 찢기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는 호흡 곤란 상태로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우선 팔이 15cm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못에 박혀 쪽 뻐은 팔과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무게는 근육에 충격을 주며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기보다 내쉬기를 훨씬 어렵게 만들고,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발을 떨어뜨려서 발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잠시동안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실게 되므로 발에 박혀있는 못이 발을 점점 깊게 찌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못이 발근육에 붙어있는 뼈를 직접 고정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려서 몸을 올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됩니다. 간신히 숨을 내린 후에는 세웠던 발을 내리고서 잠시 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숨을 내쉬기 위해 발을 세워야 하고 동시에 십자가의 거친 나뭇결에 피 묻은 등이 긁히게 됩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가 결국 발을 세울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지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살이 찢기는 아픔, 팔과 다리에 느껴지는 고통, 호흡 곤란으로 점점 조여 오는 가슴,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들어 올리면서 느껴지는 손과 발의 극심한 통증 등 그런 고통들 때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들보다 예수님께선 먼저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과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일을 끝내고 시체를 치워야 하는데 두 죄인은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꺾으면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끌어올릴 수 없으므로 숨을 쉴 수가 없어 몇 분 안에 죽게 됩니다. 빨리 죽으라고 무릎 부분을 커다란 망치로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 19:32-34).

호흡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희생자는 소위 호흡 산독증(酸毒症) -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의 산성이 증가하는 증상)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리고서는 심장이 정지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혈량성 쇼크는 심장 박동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심장을 정지시킨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삼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서도 액체가 고이는데 이것은 늑막삼출이라고 불리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묘사를 볼 때 아마도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사이였을 겁니다. 창은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뺐 때 묻어있는 액체(심낭삼출과 늑막삼출)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온 다음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을 겁니다. 게다가 건조 지역의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 몸의 수분이 다 빠지고, 벌레들도 피 냄새를 맡아 몰려들어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예수님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이 약 270cm의 십자가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이런 고통 속에서 달려있었습니다.

“제 구 시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46).

십자가의 고통...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께 가장 심한 고통은 심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나를 위하여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저 돌아가셨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조물들을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 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에큐메니칼 구원 개념의 특징(2)

안승오 교수
영남신대 선교신학 교수



사회 구조적 관점의 구원 이해 경향

전통적인 신학이해에서 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된다. 죄는 창조주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세우며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곧 "계약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역시 파괴되었다. 물론 이같은 죄의 영향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회적 차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로 인하여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이웃을 더 이상 사랑을 주고 받는 파트너 곧 '친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이용 대상이나 지배 대상으로 만들게 된다.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 역시 왜곡되어지는데, 자연 만물을 장려하고 보존하기 보다는 이용하고 파괴하게 된다.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손상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방콕의 구원이해는 전통적인 죄의 이해와는 달리 죄의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차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 방콕에 의하면 죄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며, 이러한 죄의 해결은 구조적인 악에 속박 당하여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처럼 죄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구원은 다분히 수직적인 차원보다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며, 영적이기 보다는 물질적이며, 영원한 것이기 보다는 현세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거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의 용서나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영원한 삶과는 거리가 멀며, 수직적 차원의 구원은 이론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사실은 거의 부인되면서 인간화로서의 구원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방콕대회에서 주제 강연을 했던 토마스는 말하기를 "나는 사회 역사에 축적된 죄악의 필연성을 부정할 만큼 유도 피아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의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정치를 넘어서 혹은 정치 후에 라고 하는 영역으로 추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함으로써 구원이 개인이나 교회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혹은 사회구조

적인 차원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방콕의 구원이해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사회적 차원에 중점을 두는 신학임을 살펴보면, 이 같은 이해는 자연히 중생과 같은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이란 모든 사람이 서구의 부에 동참하게 될 정도의 대규모의 기술적인 발전의 확장을 의미하며, 억압과 소외 착취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원 개념 속에서는 초월성의 개념은 거의 사라지고 거의 사회적 관점에서 기술된 구원 개념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구원 개념 속에서 사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악을 타파해야 하며, 사회악 해결을 위하여는 사회 현상의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사회학의 도입이 요구되며, 마르크스주의와 해방신학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별히 해방신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사회유리를 결여하면서 적자생존의 잔인한 경쟁주의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인간들이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 힘의 구조에 의해 완전히 비인간화 되었다고 보면서 이 비인간화된 인간을 해방하는 단 하나의 길은 그 구조를 부수고, 완전히 다른 기초 즉 사회주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보는데 방콕도 이러한 견해를 많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씨뿌리는 인생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인생의 중년은 과거를 먹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영적인 인도자의 삶입니다. 젊은이들이 돈과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세월과 경험과 성숙에서 오는 나눔의 기회입니다.

3월 여기저기 꽃 무우리를 피우는 나무들을 봅니다. 겨우내 기다리다 살아 있어 꽃을 터뜨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도 값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의 완성을 향해 주어진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아무도 자기 인생에 대해 포기하거나 때 이른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할 아름다운 삶입니다 (딤후 4:7).

인생도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전도서 3:1).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옵니다 (시 126:6). 기회는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 살 동안입니다. 지금이 씨를 것으로 심고 씨지 않을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기도와 사랑과 찬송과 나눔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압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인생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로 증거 됩니다.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심어 놓은 씨에 얼마나 물을 주었는지? 얼마나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주를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잠언 8:17).

봄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얻는 자가 복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 하리이다" (시 118:17).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성도의 졸업

이민규 목사
웨드렐웨이제일장로교회



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 졸업사에서 그간의 수고를 뒤로하고 학사모를 하늘 위로 함꼐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기대와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하늘에 떠 있는 학사모 위에 담겨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사랑하는 지체 두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지병으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제 주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수고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남겨진 유가족과 교우들의 마음은 깊이 아프고 하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과 다른 점은 세상은 이별 이후가 막막하지만 성도는 그 이후가 주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학교를 마치면 든든한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듯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마친 성도는 은혜로 천국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을 기쁨으로 불러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천국 문에서 천사와 주님의 환영식과 함께 "잘하였다"는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눈물 대신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유가족과 모든 교우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안다는 것: 익숙한 껍질을 넘어

이진호 목사
시애틀 십자가교회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몰라' 애호가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식탁 위에 콜라가 빠지면 무언가 허전하고 서운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특 쏘는 탄산과 달콤함, 느끼한 미국 음식을 빨리 소화시켜주는 효과가 그 맛을 넘어서 제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어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저는 그토록 좋아하던 콜라를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건강 비법을 실천하거나 거창한 금욕의 선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득 기도하던 중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익숙함에 대해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콜라를 좋아하는 것일까?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삶을 나누며 제가 깊이 깨달은 사실 하나는 우리가 정작 나 자신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은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라고 말하며 자신을 정의하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정한 '자아'라기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쌓아 올린 습관의 덩어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수십 년간 마셔온 콜라가 어느덧 제 정체성의 일부처럼 자리 잡았던 것 같이, 우리는 자신이 만든 틀 속에 갇혀 그것을 본래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내가 무엇을 즐기는지를 나열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둘러싼 이 익숙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정직하게 벗겨 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세밀한 손길 안에서만 그 존재의 목적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나의 방식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주님 보시기에 저는 누구입니까?"라고 겸손히 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제가 콜라를 마시지 않으며 느낀 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절제할 수 있다는 영적인 자유함이었고, 내 몸의 본능적인 요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요한 기쁨이었

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조차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삶 전체를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룩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콜라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꺾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나만의 완고한 삶의 방식입니까? 혹은 나를 증명해 준다고 믿고 매달려온 세상의 잣대 기준들입니까?

나를 안다는 것은 결국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낮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 삶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습관 하나를 잠시 멈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생겨난 작은 틈 사이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세요.

나를 비우고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진짜' 나의 모습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자녀교육 시리즈(20)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 한나



이훈구 장로
G2G선교회 대표

성경 속의 자녀교육: 성경 속 부모들이 보여준 자녀교육의 길

성경은 자녀교육의 주제를 언제나 부모의 신앙 태도에서 찾는다. 그중에서도 한나는 어머니의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시대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다. 한나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서 이슬라엘의 영적 전환점을 열었다.

자녀가 없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젊은 부모들을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다.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다.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까지 드렸다. 이 점에서 한나의 기도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드리는 기도와 분명히 다른 차별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세 자녀를 가졌다. 그리고 큰딸은 자녀 셋 둘째 딸은 자녀 둘을 두어 감사하게도 손자가 다섯이 있다. 그러나 막내인 아들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자녀 소식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아들의 가정에 자녀 하나 꼭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 중이다. 그러나 한나처럼 아들에게 자녀가 생기면 필자의 친손이 되지만, 서원 기도는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자녀를 달라고만 기도하는 필자의 신앙은 한나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필자의 작은 믿음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런 면에서 한나의 기도는 참으로 귀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다.

◆한나의 아픔은 기도의 자리로 향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았다. 당시 사회에서 이는 단순한 개인적 슬픔을 넘어 존재의 가치까지 흔들리는 상처였다. 더구나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의 조롱은 한나의 마음을 매일같이 무너뜨렸다.

그러나 한나의 위대함은 상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다. 그녀는 사람에게 항변하지 않았고, 상황을 탓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실로의 성소에서 한나는 마음을 쏟아놓듯 기도한다.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삼상 1:10)

그녀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았다. 말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간절한 기도였다. 제사장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슬에 취한 줄로 오해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오해 속에서도 한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들으셨다.

자녀교육의 출발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부모의 무릎에서 시작된다. 나는 한나처럼 무릎 꿇고 간절히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세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

◆달라에서 '드리겠습니다'로 바뀐 기도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하나님께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덧붙인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삼상 1:11) 이 서원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 전환이었다. 한나는 자녀를 '소유의 대상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녀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릴 존재로 인식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은 곧 부모의 신앙 수준을 보여준다.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한나의 신앙을 나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한나의 그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는 오늘의 내가 분명히 본받아야 할 기도의 태도라고 생각하게 된다.

◆젓을 떼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앙교육

한나의 믿음은 서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엘이 젓을 떼기까지 직접 품에 안고 신앙의 기초를 심었다.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나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로 자랐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한나는 아들을 성전에 맡긴 뒤에도 매년 작은

결실을 지어 올려보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관심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는 것이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여 낳은 사무엘을 위해 한나는 어릴 때부터 늘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어머니였다.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도, 한나는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관심을 놓지 않았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나의 믿음과 헌신적인 기도, 그리고 섬김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부모로서 한나의 믿음과 자녀를 위한 헌신적인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 어머니의 헌신이 한 시대를 세우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가 된다. 그는 혼란과 타락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

한나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회복받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민족을 회복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교육의 놀라운 역설이다. 자녀를 붙잡으면 불안이 커지지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사명이 열린다.

기도 없는 자녀교육은 방향을 잃기 쉽다. 정보와 방법은 많지만, 기도하는 무릎이 없으면 길은

없을 수 있다. 자녀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자녀를 부모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귀한 존재로 볼 때, 우리는 가장 과감하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한나는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 사무엘을 드렸고, 떨어져 있어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물리적 거리가 곧 신앙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한나는 자녀를 통해 인생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생의 사명을 얻었다. 한나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늘 간절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에 귀 기울이며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 한나

- * 자녀교육의 출발은 환경이 아니라 부모의 무릎 위에 올려진 기도에서 시작된다.
- * 한나의 기도는 '달라'는 요청을 넘어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결단이었다.
- *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 * 어린 시절에 심어진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토대가 된다.
- * 자녀를 붙잡으면 불안이 커지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와 부모 모두의 사명이 열린다.

“자연스런 영성”이란

김성수 목사
시애틀 지주교회



성경은 우리의 경험을 분별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런 영성은 “경험 중심 신앙”이 아닌 “말씀으로 해석된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 경험”입니다.

또한 자연스런 영성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초대교회는 개인 체험을 공동체가 함께 분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체험은 왜곡되기 쉽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눌 때 건강한 영성으로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런 영성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입니다. 문제 해결이나 복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런 영성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방식입니다.

자연스런 영성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739-8119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10-2700-3297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대표구좌 동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의 악단을 관람하고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할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고 오히려 감시하고 방해하려 했던 사람들까지도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 영화는 저에게 복음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 변화 받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았고, 변화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많았지만, 모두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복음을 들었다고 모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영화관에 가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에서 남한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려 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몇 명의 진짜 기독교인들과 구색을 맞추기 위해 들어간 두 명의 북한 군인이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심령에 변화를 받게 되어서 순교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 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 복음은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탈북자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어린 시절 친구에게서 복음을 듣고 탈북한 후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형제와 제가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복잡함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단순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터치하는 우리 형제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답콕, GHB 범죄 예방 교육과 마약 검출 키트 배포

대학생 또래 예방 활동 확대 이화여대 동아리박람회서 마약예방 캠페인 진행

대학 캠퍼스 내 마약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답콕, DAPCOC)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신학기 동아리박람회에서 대학생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답콕은 사랑의열매 2026 전국단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에서 열린 2026학년도 신학기 동아리박람회 현장에서 마약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 또래 기반 예방 활동을 통해 건강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생들이 마약 예방 활동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캠퍼스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두고 기획됐다.

◆GHB 범죄 위험성 알리는 예방 교육... 캠퍼스 마약 예방 인식 제고

캠페인 현장에서는 GHB(일명 '물병') 관련 범죄 위험성을 알리는 O/X 퀴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종 마약 범죄와 약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GHB가 음료 등에 몰래 투입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리며 대학생들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답콕은 이러한 활동이 대학 캠퍼스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마약 예방 지식을 습득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또래 중심 예방 활동이 캠퍼스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약 검출 키트 배포... 대학생 스스로 위험 상황 대응 지원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마약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검출 키트도 함께 배포됐다.

해당 키트는 ㈜필메디의 후원으로 제공된 제품으로, 음료 등에 마약 성분이 포함됐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파이네일(Spy Nail)'과 'G-CHECK'가 포함됐다.

답콕은 이러한 예방 도구가 학생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

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 수단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캠페인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또래 중심 마약 예방 활동 확대... 건강한 캠퍼스 문화 조성

답콕 박상규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학생들이 마약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직접 마약 예방 활동의 주체가 되어 캠퍼스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답콕 동아리 신승비 학생 대표도 이번 캠페인 이 대학 내에서 마약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아리 홍보 주간 동안 GHB 캠페인과 답콕 동아리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많은 학생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신승비 대표는 GHB가 여성 대상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대라는 특성을 살린 예방 캠페인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부스 운영을 통해 답콕 동아리를 알리고 캠퍼스 내 마약 예방 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



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답콕, DAPCOC)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신학기 동아리박람회에서 대학생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답콕

가 됐다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 마약 예방 활동 확대... 전국 대학으로 확산

이번 캠페인은 사랑의열매 2026 전국단위 지원사업 '대학생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한 또래 기반 공동체 구축 사업 '돌아봄돌아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답콕은 앞으로도 대학생 마약 예방 전문가 양성과 또래 중심 예방 활동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마약 예방 인식을 확산하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APCOC는 대학 캠퍼스 내 마약 범죄와 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예방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대학에서 약 30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마약 예방 세미나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을 마약 범죄와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문화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승연 기자

한국 교회복지사회, 교회행사용품 할인 캠페인... 소비를 선교·복지로 연결

AY공간과 협력해 최대 50%
할인 진행...수익금 중남미 선교와
교회복지 사역에 사용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매가 선교와 복지 사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도가 교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국 교회복지사회는 협력기업 AY공간과 함께 3월과 4월 교회 행사 시즌을 맞이하여 교회행사용품과 선물용품, 전도용품을 할인 판매하는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동시에 그 수익을 선교와 복지 사역에 활용하는 구조로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교회행사용품과 선물용품, 전도용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번 교회행사용품 할인 캠페인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교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물품 위주로 구성됐다. 공급되는 주요 품목에는 고급 기능

성 화장품과 천연비누, 장 건강 식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사역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성탄절과 부활절, 교회 창립기념일 행사뿐만 아니라 전도 활동이나 새신자 환영 선물 등 교회 사역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 교회복지사회는 이번 교회행사용품 할인 캠페인이 교회의 실제 필요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물품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이 다시 선교와 복지 사역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 교회복지사회에 따르면 할인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중남미 지역 선교 사역과 교회복지 실천 활동, 그리고 교회 간 협력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교회가 사용하는 물품 소비가 선교와 이웃 돌봄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교회복지사회는 교회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하나가 사역의 재원이 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교회행사용품 할인 캠페인은 교회복지연구원과의 협력 아래 진행되고 있다.

교계에는 조상원 목사의 추천을 통해 소개됐다. 조상원 목사는 교회가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물품이 선교와 복지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캠페인이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건강한 협력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제품 주문은 문자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문을 신청한 뒤 안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하면 순차적으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교회 단체 주문뿐 아니라 개인 참여도 가능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 교회복지사회는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교회복지사회는 그동안 교회복지 사역의 제도화와 현장 연계를 위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AY공간과의 협력 역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활동을 교회 밖의 회복과 돌봄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디지털 무법천지 속 아동 보호... 법안 처리 시급”

초록우산-조인철 의원,
유엔아동권리 논평 5주년 맞아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및
'선 차단' 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현장의 모습. ©초록우산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얼마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환경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5호(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채택 5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환경이 기업의 자율 규제에 치중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유해 콘텐츠 노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인철 의원은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디지털 무법천지에 방치돼 있다”라며,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위험 평가제’와 ‘선 차단’ 후 심의 시스템을 도입해 안

전한 디지털 울타리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측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구체적 보호 기준 마련을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연령 확인 체계 및 아동권리영향평가 의무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이용약관 마련 ▲기업 책무의 법적 규정 등을 사회적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유해 정보 삭제 시한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의 위험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을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고 있다. 최승연 기자

www.e-construct.co.kr

여러분의 욕실 문화를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욕실 관련 전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욕실용품 전문회사 이견비앤코

대표 최 훈 용 경기도 군포시 건건로 243-6(대야미동) 031-438-2576

욕실자재 전문회사
이견비앤코(주)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택 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덕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 저서: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러 가자> 외 다수
-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브(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관감리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항장성교회 오천교회 구로문교회 복대교회 청복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갑골한 목회자와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역	일시	장소	대표인력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예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검단비전교회(담임 박준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남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율곡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덴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실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전남 광주 경기 세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아교회(담임 김홍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강사소개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흥사 / 성장교회예식반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교정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흥사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부흥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S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60개 언어 번역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그리스도인은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신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욕망이라는 선물'



욕망을 신앙의 장애물로만 이해해 온 기존 인식을 뒤집는 신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욕망이라는 선물>이 출간됐다. 이 책은 인간 안에 남아 있는 욕망과 연약함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성숙으로 이끄시는 통로로 새롭게 해석한다.

저자 A. J. 스위보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제겨해 달라고 간구했던 '육체의 가시'라는 성경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인간 안에 남겨진 욕망과 연약함이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과정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저자는 욕망이 인간 존재의 깊은 구조와 연결되어 있으며, 왜곡될 때는 파괴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재형성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특히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성숙"이라는 익숙한 신앙 공식을 재검토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욕망을 억눌러야 할 대상이자 신앙의 장애물로 이해해 왔지만, 저자는 이러한 전제가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욕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분별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욕망이 사라진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욕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욕망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재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욕망을 통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통해 성숙해지는 신앙의 길이 있음을 차분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늘날 문화와 종교가 제시하는 상반된 메시지 사이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현대 문화는 욕망을 따라라고 말하는 반면, 종교는 욕망을 억누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욕망이라는 선물>은 이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한다. 욕망을 절대화하지도, 무조건 악마화하지도 않으며, 복음의 빛 아래에서 분별하고 성화하는 길을 제시한다. 최승연 기자

신간

신앙은 왜 대물림되지 않는가



신간 <신앙은 왜 대물림되지 않는가>가 출간됐다. 이 책은 단순한 신앙 교육의 방법론을 넘어, 가정 안에서 신앙이 어떻게 살아 숨 쉬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지를 깊이 있게 다룬다.

저자는 지난 3년간 현장에서 이어져 온 '어머니기도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온 부모들의 실제 이야기와 통찰을 책에 담았다.

자녀의 영혼이 흔들리는 혹독한 시간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결을 지키려는 부모의 눈물 어린 사명을 기록한 이 책은, 이론적 설명을 넘어 삶으로 증명된 신앙 전수의 실제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책은 자녀의 '잘됨'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시간이 흐르며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처음에는 자녀가 세상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라지만, 결국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깨달음이 부모의 시선을 바꾸며, 자녀를 현재의 성취가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신앙 전수를 '지식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공기를 지키는 문제'로 설명한다. 예배와 기도의 분위기,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문화가 가정 안에 형성될 때 자녀의 영혼에는 '영적인 맛'이 각인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삶의 갈림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로 나누고, 신앙의 선택을 실제 삶 속에서 보여 줄 때 신앙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고 책은 말한다.

저자는 또한 신앙 전수의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한계와 고통을 숨기지 않는다.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부모는 자리를 떠날 수 없으며, 때로는 "나라도 서 있어야 한다"는 눈물 섞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배우자의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상황이 어렵더라도, 누군가는 자녀 결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자녀의 신앙 방향으로 고민하는 부모에게 위로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교사와 목회자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전략을 제공한다. 반복되는 기도의 소리와 부모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신앙의 맛으로 남고, 훗날 삶의 풍랑 속에서 그 기억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최승연 기자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번역서 「범죄교정상담학」 출판기념회 개최

교정상담 이론과 실제 담은 전문서 출간... 학문적 의의와 현장 활용 가능성 공유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가 최근 서울 마포구 학지사 빌딩에서 학회 번역서 「범죄교정상담학」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상담학회가 공식적으로 번역출간한 첫 전문서 「범죄교정상담학」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교정상담 분야의 학문적 의의와 현장 활용 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죄교정상담학」은 Peter C. Kratcoski의 대표 저서 「Correctional Counseling & Treatment」 제7판을 번역한 도서로, 교정시설에서 활용되는 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정상담 분야의 대표적 참고서로 평가된다.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범죄교정상담학」 출판기념회 참석자 기념 사진. ©교정상담학회

이 책은 교도소와 소년원, 보호관찰소, 가석방 제도, 지역 사회 거주형 교정시설 등 다양한 교정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 모델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년범 선도와 회복적 정의, 증거 기반 평가와 분류,

인지행동치료, 집단상담, 위기개입 등 현대 교정정책과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도서는 교정치료의 목적을 단순한 처벌이나 재범 억제에만 두지 않고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적 기능 회복을 통해 수형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서는 번역위원으로 참여한 박안나 저술편찬위원장과 박성은 윤리위원장이 도서의 주요 내용과 번역 과정, 교정상담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행사 참석자들에게는 번역서 「범죄교정상담학」이 제공됐으며, 간단한 식사와 함께 학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정상담학회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학회의 첫 공식 번역서가 갖는 학문적 의미를 회원들과 공유하고, 교정상담 분야의 연구와 실천을 연결하는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지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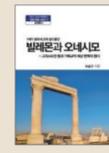
3월, 작가들의 말말말



설교자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에 구원하실 사람을 선택하신 시기"와 때는 창세기이다"라고 설교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의 시기와 때에 대한 질문이 설교가 아닌 신학적 논리 해석의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답이 매우 어렵게 된다. 심지어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물론, 설교자는 이 질문에 대해 설교할 때는 반드시 그 시기를 '창세기'라고 원문적 견해를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데도 이와 관련된 신학적 쟁점을 거론하는 이유는 설교자는 신학적 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정립된 신학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제3 교리(1)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이때 설교자가 꼭 잊지 말고 전해야 할 것은 이 교리 속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한 인치심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생 사역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허락하신 사람에게 실제화되며 그러한 실제화는 효과적 부르심과 소명에 인간이 전적으로 응답하게 됨으로써 확실시된다는 사실도 설교해야 한다. 김철웅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알고리즘의 설계는 영적 몰입을 흉내 내지만, 성숙한 묵상이나 회심으로는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 사용자는 참여자가 아니라 관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짧은 설교 클립이나 요약된 묵상 영상이 난무하면서 신앙은 더 즉각적인 만족의 구조 속에 편입된다.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경우,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지게 된다. 여러 정보들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학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지식 수준은 증가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고정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는 작용만이 반복될 뿐이다. 알고리즘은 이 과정에 개입하여 인간의 인식 세계를 점점 더 비판적으로 몰아간다. 홍광수 '알고리즘에 길들여진 믿음'



인간 생명의 나눔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사람으로 되는 일", 곧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요일 4:7; 고전 1:30).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음'은 어머니 뱃속에서 물리적으로 태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부성적 낳음'에서는 성령님께서 아무런 방도 없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으십니다. 이를 새로운 생명의 원리(the principle of the new life)를 심으신다고 해서 '입자(implantation)'라고 합니다. 그 후에 적절한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전통적으로 '모성적 낳음'이라고 표현하여 왔습니다. 이때는 말씀이 중생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약 1:18). 이승구 '빌레몬과 옌네시모'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문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가뭇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적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효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정감 있는 말씨와 위문 문체로 전하는 변연의 예언자의 메시지' 이 책은 영혼의 갈망과 기쁨을 깨우치는 길잡이입니다.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은혜를 배반한 뱀

탈무드의 지혜

어느 추운 겨울, 노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추위로 거의 얼어죽어 가는 뱀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자비로운 노인은 그 뱀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조심스럽게 잡아서는 자기 품속에 품어 주었다. 노인의 온기로 차츰 원기를 회복하게 된 뱀은 입장이 달라지고 보니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 드디어 완전히 힘을 되찾게 되자 뱀은 생명의 은인인 노인의 몸을 둘둘 감아 죄어 죽이려고 했다.

놀란 노인은 뱀에게 큰소리로 꾸짖었다. “이 나쁜 놈 같으니... 내가 얼어죽을 것을 불쌍히 여겨 내가 살려 주었거늘, 감히 나를 죽이려 해! 이게 무슨 경우냐? 자, 함께 재판관 앞에 가서 따져보자.” “좋지. 그럼 누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맨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자를 재판관으로 삼자.” “좋다.”

노인과 뱀은 함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저쪽에서 황소 한 마리가 오는 것이 보였다. 황소를 불러 세운 노인은 황소에게 그 동안 일어났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뱀이 한마디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네. 성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한다.’ 라고.”

묵묵히 듣고 있던 황소는 점잖게 판결을 내렸다. “뱀의 말이 맞는 것 같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인간이 뱀에게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뱀은 악하게 보답을 해도 좋을 것이오. 사실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 푸대접을 받아왔소. 나의 주인을 봐도 그래.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위해 뺨뺨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내게 고마워 할 줄 모르게, 주인 놈은 하루종일 늘면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먹고 내게는 찌꺼기조차 주는 걸 아까워하지. 또 잡자리는 어

떻고, 자기는 따뜻한 침대에서 포근히 자면서 나는 마당에서 덜덜 떨면서 자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거든.”

황소는 처음엔 점잖게 나오다가 점점 흥분하여 욕을 내뱉기도 하는 등 과격한 말과 인간에 대한 불만만을 쏟아냈고 는 자리를 떠났다. 노인은 황소의 영타리 판결에 화를 내며 다시 뱀과 함께 계속 걸어갔다. 이윽고 이리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또 이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리는 노인과 뱀을 번갈아 보고 나서는 황소와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역시 화가 난 노인은 다윗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뱀에게 말했다. 이윽고 다윗 왕 앞에 나선 노인과 뱀. 그러나 다윗 역시 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진 않았다. “성서에서도 말했듯이, 옛부터 뱀과 인간은 원수지간이다. 그러니 뱀이 너를 해친다 해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윗 왕 앞을 물러 나왔다. 그때 뜰 한편에 있는 우물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 솔로몬 왕자가 노인의 눈에 띄었다.

그때 소년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의 지팡이가 우물에 빠졌기 때문에 수면이 돌을 던져 지팡이가 물위로 떠오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노인은 솔로몬의 그런 행동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 채고는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왕자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 해 봐야겠다. 어쩌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지도 모르겠군.’ 노인은 솔로몬에게 다가와 뱀이 자기에게 했던 못된 행동을 소상하게 얘기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다룬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왕님께서 대왕님의 힘으

로도 저를 구해줄 길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랬나요? 어디 우리 함께 아버님께 가봅시다.” 그리하여 솔로몬과 노인 그리고 뱀은 다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다보니 그렇게 밖에 판결을 내릴 수 없었나이다.” “아버님, 그러시다면 이 사건을 저에게 한 번 맡겨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요청에 다윗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의 총명함을 아는지라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먼저 솔로몬은 뱀을 향해 물었다. “너는 왜 너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는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런 말을 들어 보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율법 말이다. 만일 내가 성서를 그렇게 존중한다면 너는 즉시 그 노인의 몸에서 떨어져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뱀은 대답과 동시에 노인의 몸을 감고 있던 것을 풀고는 노인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솔로몬은 노인을 향해 판결을 내렸다. “성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성서에서 말하는 대로 빨리 하시오!” 그러자 노인은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고 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그리하여 뱀은 배운망덕했던 죄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제공

바이블지식IN

성경은 동성 결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동성결혼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죄로 정죄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동성의 성관계를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죄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27절은 동성애에 대한 욕구와 행위를 수치스럽고, 비정상적이며, 음란하고 불건전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동성애자들은 불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욕구와 행위는 성경에서 정죄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간에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실, 죄가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결혼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입니다. 결혼에 관해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6절과 에베소서 5장 23-33절과 같은 본문은 결혼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는데, 성경은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간의 평생의 연합이며, 가정을 세우고 또한 가정을 위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성경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모든 문명에서 나타나는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같습니다. 역사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현대 일반 심리학 역시 남성과 여성들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정과 관련하여 주장하기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으로 서로 연합하여 각각 훌륭한 성적 역할 모델이 되면 그것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한 최선의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은 동성 결혼에 대해 반대 주장을 합니다. 본성상 육체적으로 서로 ‘잘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출산

을 위한 성행위의 ‘본성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도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만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성은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성경, 역사, 심리학, 그리고 본성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을 찬성하는데 왜 오늘날 그러한 논란이 있습니까? 왜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정중하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마음에 가득 찬 편협한 고정관념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비종교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 커플도 일종의 합법적 결혼의 형태로 다른 일반 부부들과 같은 법적 권한을 누리는 것에 대해 지지하거나 최소한 덜 반대하고 있는데 왜 동성애자 권리운동은 동성 결혼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 대답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동성애가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러한 내재하는 지식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어떠한 반대 대해서도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동성 결혼을 이성간의 전통적인 결혼과 같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32절은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진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진리는 거부되고 거짓말로 대체됩니다. 그 후 거짓말이 장려되고 진리는 억압받고 공격 당합니다. 동성애자 권리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자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격렬한 분노를 드러내는데, 이는 사실 그들이 그들의 입지가 방어 불능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약한 입지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논쟁에 관한 기술 책에서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요령입니다. 아마도 현대 동성애자 권리 안전에 관해서는 로마서 1장 31절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묘사는 없을 것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동성 결혼을 허가한다는 것은 성경



이 명백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죄악으로 정죄한 동성애적인 삶의 방식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 결혼에 대하여 굳건히 반대해야 합니다. 더욱이 동성 결혼에 반하는 강력하고 논리적인 주장들은 성경 밖에도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간의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창 2:21-24; 마 19:4-6). 동성 결혼은 결혼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며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용납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을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고(엡 4:15), “온유와 두려움”(벧전 3:15)으로 진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위해 굳게 서야 하며, 그로 인해 개인적인 공격과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요 15:18-19). 갯척스천스 제공

이스라엘라이프

죽장들의 이동경로 (2)

◆ 이삭의 이동경로 ◆

그랄
메소보다마 : 종을 보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얻음.

↓

그랄 :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임.

↓

브엘세바 :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씀하심. 아람의 장자권 축복 <계속> 길에서 배우는 세계와 여행이야기



브엘세바



브엘세바의 우물



브엘세바-옛 우물 우적을 알려주는 표시판

행복한농업,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골프하는 삽화가 있는 16세기 골프북 기도서

강정훈의
성서화 탐구

성경의 궁금증 성서화로 풀기

골프(Golf)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세에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경기하는 모습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에 골프북(The Golf Book)으로 알려진 16세기의 필사본 기도서(Book of Hours)에 골프가 스포츠로서 또는 오락으로서 생생하게 묘사된 원색 삽화가 들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이 기도서에는 성인들의 축일이 표시된 9월 달력의 아랫부분에 골프하는 장면의 삽화가 있어 이 기도서를 일명 "골프북"으로 부르고 있다.

이 골프게임 그림을 보면 농장입구의 건물 앞에서 젊은이 셋이 오늘날의 골프와 유사한 게임을 하고 있다. 청색 옷을 입은 청년은 골프채로 볼을 흙 쪽으로 칠 기세이고 적색옷의 청년은 흙 앞에서 몸을 낮추어 무릎을 꿇은 채 볼을 흙에 넣고 있다.

회색옷의 청년은 골프채를 들고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초록색 옷을 입은 좀 나이가 든 청년은 왼손을 들고 경기진행자 같은 자세로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또는 저 건물 문 앞에서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을 가리키며 심부름을 온 사람 같기도 하다.

중세 교회나 수도원의 성직자들이 사용하던 고가의 양피지에 그린 필사본 기도서에는 사복음서와 시편의 주요 구절과 기도문이 아름다운 성서화 삽화와 함께 수록 되었으며 교회축일을 표시한 캘린더에는 계절별 노동과 레저를 그린 삽화가 들어 있어 전체적으로 아름답다.

이 골프북 기도서는 1530년경 당시 최고의 채색필사본 장인인 플랑드르의 시



시몬 베닝(Simon Bening) | 9월 캘린더(calendar, September) | 골프북 기도서 The Golf Book (Book of Hours) | 1530년경(C.1530) | 영국국립도서관, 런던(부분) The British Library, London, (detail)

몬 베닝(Simon Bening)이 그의 공방이 있던 브뤼헤(Bruges)와 겐트(Gent)에서 주도적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 기도서의 최초 소유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시 유럽은 상업의 발달로 성직자뿐 아니라 부유층이 필사본 성서나 기도서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 골프 북에는 골프게임 외에도 굴림쇠놀이, 활쏘기, 보트타기 등 당시 인기 있던 레저를 주문자의 취향대로 캘린더 밑 부분에 삽화로 정교하게 그렸다는 점에서 신앙심이 돈독한 개인적 기도서로 보여진다.

영국 국립도서관이 1861년에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던 이 기도서를 최근 스페인 Moleiro사에서 팩시밀리판으로 영인 출판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Moleiro사로 부터 중세 성서와 기도서의 삽화를 수집하면서 이 골프북 자료를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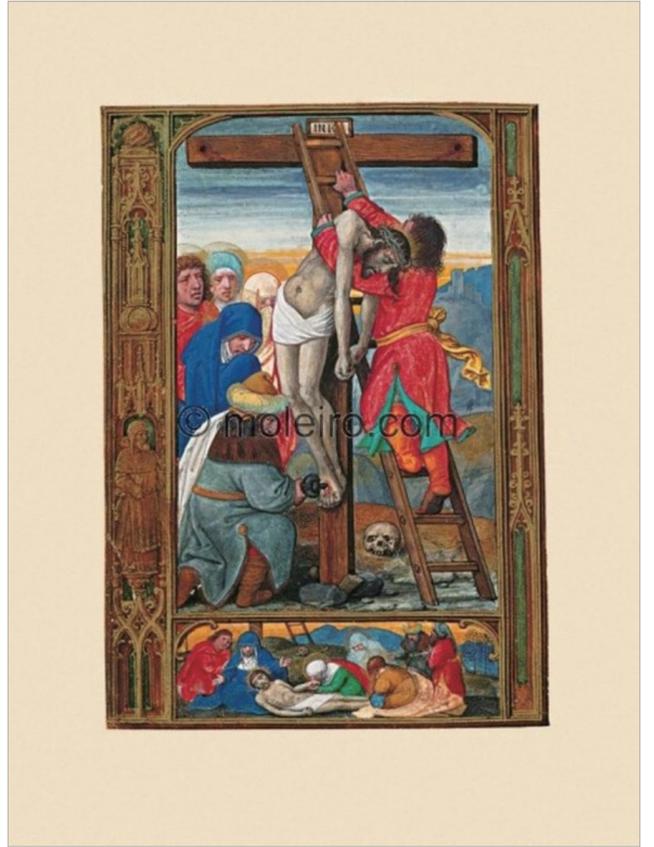
이 기도서에는 성인축일과 교회주요 절기를 표시한 12장의 달력뿐만 아니라 그 달에 맞는 세시풍속과 노동을 그린 전면 삽화 12장이 있다. 그 외에 성인의 초상을 제외한 성서의 인물과 사건, 그리고 교훈을 그린 성서화(biblical art)는 다른 기도서에 비해 적은 편이다.

성서화로는 감람산에서의 기도, 유다의 키스, 십자가에 달리심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등이 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다다리에 올라서 죽은 예수를 부축해 내리고 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발에 박힌 못을 집게로 뽑고 있다.

니고데모 바로 뒤에는 푸른 옷을 입은 성모가 여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오열하고 있으며 그 옆에는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도요한이 있다.

아래 그림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의 머리를 다리에 올



시몬 베닝(Simon Bening) |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Descent from the Cross) | 골프북 기도서 The Golf Book (Book of Hours) | c.1530 | 1530년경(C.1530) | 영국국립도서관, 런던(The British Library, London)

려놓고 애도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인물이 하나 늘었는데 예수의 발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다.

십자가 아래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아담의 해골이 보인다. 제2의 아담인 예수

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아담이 범한 원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심오한 교리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골고다언덕에 굴러다니던 아담의 해골을 보면 깊은 감동을 받는다.

◆ 강정훈 교수

강정훈 교수는 연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학원(행정학박사)을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뉴욕총영사관 영사 및 조달청장(1997~1999)으로 봉직했다.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회장 및 성균관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신성대학교 초빙교수(2003~2016)를 지냈다. 미암교회(예장) 원로장로이며, 1994년에는 기독교잡지 '새가장'에 1년 2개월간 성서화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한 후 현재도 서울 성서화 라이브러리(http://blog.naver.com/yanhwajin)를 운영하며 성서화를 쉽고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천년의 신비 성서화" "이천년의 침묵 성서화" 등이 있다.

건강상식

거친 손 예방하려면 보습 충분히 해야

한 살을 더 먹고 나면 주름이 더 깊어졌을까 겨울을 자주 들여다보지만 정작 겨울을 잡고 있는 손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얼굴처럼 화장을 할 수도 없는 곳인데 그렇게 무시해서야 될까.

우리 신체 중 손만큼 학대를 당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 어느 곳보다 자외선이나 찬바람 등 외부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운동량도 많아 더 잘 거칠어지고 주름도 잘 생기지만 그저 무엇을 집고 만지는 도구로만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거칠어지고 찝찝해져야 연민을 느끼게 된다.

손은 어느 부위보다 내 나이와 삶을 잘 드러내기에 잘 가꾸어야 한다. 더욱이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어서 항상 많은 관

심을 두어야 한다. 손에는 우리 몸의 기혈을 운반하고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을 조절하는 경락과 경혈이 존재해 손을 통해 현재 몸 상태나 질병 정도를 알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손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 일단 청결해야 한다. 요즘에는 독감이나 신종인플루엔자다 하여 다들 손을 자주

씻겠지만 대부분 꼼꼼히 씻지 않고 대중 씻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세제나 비누 등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게 되므로 꼼꼼히 닦아야 하며, 가급적 미지근한 물에 씻어야 한다. 뜨거운 물은 표피의 유분을 빼앗아 쉽게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찬물은 오염물질을 깨끗이 없애주지 않기 때문이다.

손을 씻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핸드 케어 제품을 발라 유수분을 공급하고 보호막을 형성해주어야 한다. 가급적 물기가 마르기 전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좋으며,

제품을 바른 뒤 가볍게 마사지 해주면 혈행도 좋아지고 제품 흡수도 잘 된다.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 등을 할 때 고무장갑이나 면장갑 등을 착용하여 손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하나 더. 피부 노화의 주범은 자외선이다. 따라서 얼굴뿐 아니라 손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날씨가 서늘하고 건조할 때는 손에도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흑설탕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면 좋다. 흑

설탕과 물을 1:2로 섞어 약한 불에서 살짝 끓인 다음 식혀서 손 등에 바른 뒤 비닐랩으로 감싸주고, 20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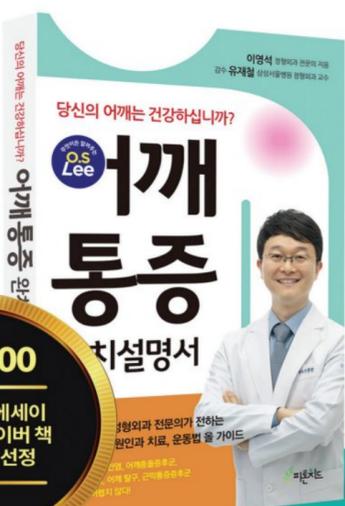
물론 팩을 한 뒤에는 적절한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적당히 유분기가 있는 제품을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습 효과가 있는 로즈마리나 바질, 일랑일랑, 카모마일 오일을 손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다.

김소형 한의학박사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은혜의 샘물 성도, 기름부음 받은 자 (1)

[고린도전서 1장 1-3절]

예수 믿고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을 '교인', '기독교인', '크리스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같은 말이다. '기독교인'은 한자에서 온 말이고, 영어 발음 그대로인 '크리스천'은 헬라어인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온 말이며, '그리스도인'은 헬라어인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다.

'교인'이란 말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회원이란 의미가 될 것이다. '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 모두 소속감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교인'이라는 말은 타 종교인에게도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만을 지칭하는 의미가 희박한 반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만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분명하게 드러

나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최초로 쓰인 곳은 안디옥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 신시나티 신학대학원에서 헬라어를 공부할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일컬음을 받는다'의 헬라어 단어 '크레마티조'를 연구해서 학기말 과제로 제출한 적이 있다.

헬레니즘 시대에 기록된 헬라어 문헌들과 사전들을 샅샅이 뒤지고 연구해서 고생 끝에 얻어낸 결론은 이 말의 중요성이 소속감에 있다는 것이었다. 사립하는 사람을 사립가라 하고, 이발하는 사람을 이발사라 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

게 된 것이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기록은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으로 안디옥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요, 그들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 용어가 생겼다는 뜻일 것이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예수의 직책을 말한다. 이 예수의 직책과 관련된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려는 주제 바로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기름부음 받은 자' 또는 '뽑힌 자'를 뜻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

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다. 또 '기름부음 받은 자'는 특별히 '선택된 자' 또는 특별히 '뽑힌 자'를 뜻한다. '교인'도 '뽑힌 자' 또는 '불러냄을 받은 자'란 뜻이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회중' 또는 '뽑힌 자들의 모임'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회'와 '교인'의 뜻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뜻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약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뽑을 경우 선지자가 그들의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 임직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있으며(삼상 10:1, 16:12, 왕상 1:45), 사독은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고 있다(대상 29:22). 또 엘리사도 기름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고 있다(왕상 19:16).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책 즉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책을 모두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이분을 '메시아'라 불렀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라 불렀다. 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즉 작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예수나 그리스도인이나 실제로 구약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나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기름부음 받은 자'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인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은 성서를 문자적이고 육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 한다. 그러

나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를 영적이고 신령한 측면에서 이해하려 한다. 성서에 관한 이런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천년 전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반면, 아직도 일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신약의 방법인 침례를 통해서였다. 초대교회는 침례 또는 세례를 하나님의 기름부음의 예식으로 이해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 성령의 외적인 능력의 임재가 있어서 기름부음을 확증했던 반면, 신약시대에는 침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내적인 구원과 성화의 임재가 있어서 기름부음을 확증했기 때문이다.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교회오빠 주의 보혈의 능력 (1)

나는 1939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불도가 선 집안이었는 데 부모님은 해마다 농사지어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절에 가지고 가곤 했다. 처녀 시절엔 교회에 무척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무서워 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중매가 들어왔을 때 신랑 될 사람의 집안은 예수 믿는다는 중매쟁이의 말에 그 집으로 사집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막상 사집가서 보니 중매쟁이 말과는 반대로 친정보다 불도가 더 선 집안이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눈에 핏기가 보이는 것처럼 혼자서 하루 종일 중얼거리곤 했다.

점쟁이는 칠성줄 타고났으니 신을 받아야 산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먹기만 하면 토하는 증상이 있어 몇 달씩이나 묶은 죽 한 모금, 마음 한 수저 제대로 먹지 못했다. 바삭 말라 곧 죽을 것 같은 몸골에 겨동도 못 하고 여러 해를 고생했다. 막내딸 귀육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더욱 증세가 심해서 거의 일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갓난아이가 쯤배도 많이 곱았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씩 묶 한 모금 못 먹었는데도 죽지도 않았고, 길을 때를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걸음이 빨랐

다.

이렇게 몇 년을 고생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만난 어떤 점쟁이가 나를 보더니 "당신은 칠성줄을 타고났으니 죽은 시어머니 신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안 받으면 죽거나 불치의 병이 듭니다"라고 했다. 난 생처음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 그렇지만 점쟁이가 되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느 장날, 또 어떤 점쟁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깨달아야지. 이미 조상신이 재산 불러주려고 당신에게 왔으니 잘 풀어서 돈 받고 사시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죽으면 죽었지 점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점쟁이 집안은 처음에는 재산이 많아 잘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자식들이 다 잘 안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안 풀고 이겨서 자식들에게 이 고생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굳은 결심을 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신을 떼는 말을 듣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나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면 신이 저절로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가보니 하품만 나오고 목사님 설교 소리는 한 마디도 귀



에 들어오지 않았다. 교회에 나갈 때마다 매번 졸고 예배도 기도도 제대로 못 드려다 보니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자식들은 오 남매 중에 큰 아들만 빼고 넷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나는 처녀 때 그렇게 교회 가고 싶었던 마음은 어디 가고 교회 나가는 아이들을 핍박했다. 아이들 아버지는 장사하다가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시고 스물 일곱 살에 혼자 되어 오 남매를 키우면서 마음이 강박해져서인지 "예수가 밥 먹여 주냐"며 얼마나 아이들을 핍박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딸아이 셋은 끝까지 예수를 믿었고, 나에게도 울면서 여러 번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자궁암 말기 - 수술도 못 하게 되자 예수 안 믿은 것 후회해

그러다가 내가 마흔다섯 되던 해 여름이었다. 몸이 나른하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농약 중독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몸이 점점 이상해져서 대구 큰 병원에 갔더니 뜻밖에도 자궁암이라는 것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길로 서울대학병원과 원자력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두 군데에서 똑같이 수술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방사선 치료하고 약을 먹으라고 했다.

젊어서부터 워낙 많이 굶어서 몸이 너무 쇠약하여 방사선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때 신을 받지 않으면 큰 병이 든다면 점쟁이 말이 생각이 났다. 점쟁이 말을 무시하고 신을 섬기지 않았으면 하나님이라도 꼭 붙잡고 섬길 것이지 어찌자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오다가 자식들 결혼도 못 시키고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싶어 내가 걸어온 인생길이 너무도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때부터 나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코에서 소독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이었다. 소독약을 뿌린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소독 냄새가 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진찰을 받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암이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한참 후에 같은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어느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소독 냄새가 나타나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듣고 그때서야 나의 암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

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고 세상 물질에 마음을 쏟아 제대로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앞으로 3년만 더 열심히 일해서 적금을 타면 그 이자를 받아서 현금도 하고 믿음 생활도 잘 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95년에 나는 다시 하혈을 하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싶으면서도 그냥 일만 다니다가 1997년 6월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암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와 피에 다 퍼졌다는 것이다.

7일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의사는 삼일 이상을 못 넘길 것이라고 하자 자식들이 모여 장례를 의논했는데, 주일날은 퇴원 수속이 안 되니 서둘러 퇴원시키자고 의논이 된 모양이었다. 작은아들이 시골로 나를 데려가려 했지만 막내딸 귀육이는 내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켜 천국 가게 할 양으로 제 오빠에게 "시골은 농사철이라 바쁘니 지금 모셔가지 말고 상이 나면 그때 의논하자"고 설득해서 나는 연세중양교회에 다니고 있는 막내딸 귀육이네 집으로 옮겨졌다. <계속>

김순란 집사/창골산 봉목사 제공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도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제자훈련원, 36기 훈련생 개강예식 개최

20대 청년 11명 훈련 시작 JDM 제자훈련 통해 복음전파·세계선교 비전 다짐

예수제자운동(대표 윤태호 목사, 이하 JDM)의 제자훈련 기관인 한국제자훈련원(KDTI)이 최근 36기 훈련생 개강예식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제자훈련원은 세계선교와 만민제자와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지도자를 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매년 3월에 개강하여 12월 졸업까지 9개월 동안 신학, 제자도, 리더십, 소그룹 이끌기 등의 수업과 함께 캠퍼스전도훈련, 농촌, 도시공동체훈련, 리더십훈련, 해외훈련 등의 현장 훈련을 병행한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온전한 인격을 겸비한 제자로 거듭나도록 돕고 있다.

설립 35주년을 맞은 한국제자훈련원은 올해 36기 훈련을 시작했으며, 이번 기수에는 20대 청년 11명이 참여했다. 오는 5월 초에는 단기과정으로 태국 출신 2명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한국제자훈련원은 그동안 5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선교사와 목

회자, 캠퍼스 간사, 생활선교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사역하며 지역교회 지도자로 섬기고 있다. 훈련원은 '제자가 되자, 목자가 되자, 개척자가 되자'를 목표로 집중적인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 과정에는 신학대학원 M.Div 과정 2학기 수업이 포함돼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해외선교훈련과 JDM 유럽수련회 참석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훈련생들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 인종, 세대를 아우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유럽의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며 순교 신앙의 발자취를 배우게 된다. 훈련원은 제자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성경적 훈련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훈련원 측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세계교회의 향방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훈련받는 젊은 지도자들에 의해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젊은 제자훈련에 도전하고 참여하는 이들이 한국교회와 캠퍼스에서 더욱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윤태호 대표는 SNS를 통해 캠퍼스 사역의 의미와 훈련생들의 헌신을 전했다. 그는 "캠퍼스는 개강했고 신입생들은 설



한국제자훈련원, 36기 훈련생 개강예식 진행 사진. ©KDTI



한국제자훈련원, 36기 훈련생 개강예식 참석자 단체 사진. ©KDTI

렘으로 학교의 문을 받았지만, 캠퍼스 안의 기독교 학생들은 '소수'라며 "그러나 이들이 기도와 복음으로 캠퍼스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캠퍼스 사역이 쉬웠던 적은 없지만 코로나 시절 신입생이었던 이들이 졸업 후 훈련생으로 입소했다"며 "적박한 캠퍼스 현실을 버티는 이들의 개강예식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베트남에서 사역하던 자매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졸업 후 간사 지원을 하며 훈련생으로 입소했고, 지난

해 모임에서 MK 1호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미국 형제도 훈련생으로 참여했다"며 "우리의 기도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강예식에서는 KDTI 선배이자 모임 간사이며 36기 훈련생의 아버지인 송철용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며 훈련의 바른 태도와 목적을 강조했다. 이어 본부의 손귀연 목사와 엄상섭 목사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으며, KDTI 선배이자 이사장인 김연숙 이사장이 환영사를 통해 훈련생들을 맞이했다.

훈련원은 개강 첫날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시작을 축하했다. 윤실권 사모와 봉사자들이 한 해 동안 훈련생들의 식사를 섬기며 지원하게 된다.

이날 개강예식에서는 총 3520만 원의 장학금이 11명의 훈련생에게 전달됐다. 장학금은 한 공동체의 헌신과 한 부부의 후원,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섬김, KDTI 이사회와 총동창회의 지원, 자녀를 잃은 부모의 헌신과 자신의 죽음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한 권사의 뜻 등이 모여 마련됐다.

한편, 예수제자운동(JDM, Jesus Disciple Movement)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태복음 28장 19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비전으로 모인 공동체로, 다양한 제자훈련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복음주의 선교단체다.

JDM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사역과 전국 16개 주요 도시 대학에서 진행되는 대학사역을 비롯해 직장 사역, 가정사역 등을 펼치고 있으며, 전세계 28개국에서 해외선교 사역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혁주의적 신앙 전통 위에서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경적 교리를 지지하고, 만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역하고 있다.

JDM의 3대 강령은 ▲복음전파 ▲제자훈련 ▲세계선교이며, 5대 정신은 ▲예수 열정 ▲십자가 정신 ▲공동체 정신 ▲무소유 정신 ▲단순한 삶이다.

윤 대표는 "이 모든 사역이 훈련원 공동체의 마음을 울리고 연속하게 만든다"며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11명의 훈련생을 위해 계속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지동 기자

감신대, 2026년 봄학기 영성집회 개최

울산감리교회 최인하 목사 초청...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감신대(총장 유경동)는 최근 이틀간 웨슬리체플에서 '2026년 봄학기 영성집회'를 개최하고 울산감리교회 최인하 담임 목사를 초청해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4일에 열린 첫날 집회는 학생경건 처장 권진숙 교수의 환영 인사와 이터너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부 비상대책위원장 김예담 학우의 기도 후 울산감리교회 담임 최인하 목사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끈다"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듣는 줄 아는 지혜, 곧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 깊이 빠지는 신학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에 비유하며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며, 하나님의 은혜가 참석자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설교를 마쳤다.

둘째 날인 5일 집회는 립스의 찬양과 대학원 비상대책위원장 김민희 학생의 기도로 시작됐다. 이날 최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도를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임계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를 강조하



감리교신학대학교 2026년 봄학기 영성집회 진행 사진. ©감신대

며 "말하는 혀보다 듣는 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으며 참된 기도는 말씀과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 세상의 고통과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영원하다. 기도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성집회는 최인하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한편, 영성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최인하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81학번으로 1987년 본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울산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지난해 봄학기 영성집회에서도 말씀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울산감리교회 성도들은 학생들을 위해 두 권의 책과 이틀간의 간식을 후원했다. 교회 측은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었으며 이를 최인하 목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정지동 기자

서울신대, 2026학년도 개강 맞아 학생 격려 이벤트 진행

총장 총학생회 참여해 쿠키 나눔·천원의 아침밥 전달·배식 봉사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가 2026학년도 신학기 개강을 맞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서울신대는 최근 교내에서 개강 행사를 열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는 황덕형 총장과 제42대 시드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김시현)가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진행됐지만,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과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만남과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행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쿠키를 나누는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천원의 아침밥' 행사에서 황덕형 총장이 직접 음식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축복과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서울신학대학교 2026학년도 신학기 맞이 개강 이벤트 진행 사진. ©서울신대

점심시간에는 교내 학생식당에서 사랑나눔 이벤트도 진행됐다. 황덕형 총장을 비롯해 교무처장 김성원 교수, 학생처장 조성희 교수, 제42대 시드 총학생회 김시현 회장, 제51대 동행 원우회 안태민 신학대학원 주간 원우회장 등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직접 배식을 하며 격려했다.

황덕형 총장은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시작하며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하고 응원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지동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예배와 음악

예배는 교회사적으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예식중에 하나이다.

현대에도 가장 대두되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에 대해 많은 책들이 나오고 예배에 대한 많은 세미나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배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교회에서 시도되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 음악은 예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옛날 제사때도 음악은 함께 있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 여러 원시민족들도 승배의 대상을 향해 제사지낼 때 언제나 음악은 함께 있었다. 경건함과 축제가 함께 있는 문화적 코드가 비슷함을 볼 수 있다.

기독교의 예배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장동학

현대예배에선 음악이 빠질 수 없다. 아니 예배가 음악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일례로 전통예배에서 예배전 오르간이나 경음악을 틀어놓고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한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 찬양대의 입례송을 부른다.

이어서 회중과 함께 찬양하고 찬양대의 기도송이 있고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부른다. 헌금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축도 후에도 찬양대의 축도송으로 끝난다.

예배가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난다. 현대적 스타일의 경배와 찬양예배도 마찬가지이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15-20분의 찬양밴드로 구성된 찬양단이 찬양을 주도한다.

그리고 그 후에 전통예배 방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악이 예배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당연히 음악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음악이 없으면 예배가 안된다고까지 생각한다. 하지만 예배는 음악이 전부 아니다. 음악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영국의 예배인도자 매튜레드먼은 예배를 계시와 반응이라고 했다.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시간이

다.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음악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쉽고 그리고 깊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배속에서 음악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음악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임재와 영적인 만남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링컨바흐는 "하나님은 음악이시다"라는 책을 썼을 정도다. 그 만큼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 자연과 사람과 교감하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시편가자에서도 자연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예배는 예배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인들에게 대중문화 특히 대중음악이 삶에 깊숙이 자리매김한 것처럼 예배음악 그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

하지만 음악은 예배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예배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요즘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찬양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찬양시간에는 뜨겁게 손을 들고 눈을 감거나 눈물을 흘린다.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한다.

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 이런 현상은 예배음악이 예배라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올바른 예배훈련이 필요하다.

목회자들과 예배사역자들, 찬양사역자들은 예배와 음악의 분명한 정의를 알고 예배를 위한 효과적인 음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효과적인 음악이란 음악이 앞서지 않고 회중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음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신학을 토대로한 예배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적인 음악사역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자들을 세워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전 성도들이 예배훈련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찾기보다 참

된 예배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속에서 음악을 통해 각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명하고 잘 알려진 교회의 예배모습을 보고 그대로 베끼기 식의 예배를 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이 안되어 있는데 악기나 노래를 쫓는다는 성도들을 모아 찬양팀을 만들고 기타 잘 치면 찬양인도자로 세운다.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이다. 무분별한 모방은 오히려 음악을 통해 예배가 방해될 수 있으며 회중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각 교회마다 예배 속에서 음악을 잘 사용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 장동학

서울에서 태어나 휘문고, 외대 영어과, 장신대 신대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미국 Fuller 신학교에서 가정사역(D.Min)을 전공하였고, 1999년 12월 5일 수원연동교회(현재 하늘꿈 연동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행복한 목회중에 있으며 한세대 대학원과 두란노 상담학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상담학을 강의하고 현재 총회 부부사랑학교 강사와, 총회 아파트 전도, 총회 교사대학 강사로 활동하며, CTS와 국민일보, 기독교보에 출연 꿈을 키우는 차세대 대안목회자로 주목 받고 있다. 저서로는 부부사랑만들기(한국장로교출판), 목회상담학(한세대), 아파트전도실제(총회출판국), 교회학교 아동상담(총회출판국) 등이 있다.

음악을 잘하고 싶은 마음



류정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달란트)을 통해 우리는 모두 각자 맡은 부분의 연주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음악을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건강하게 작용할 때는 좋은 발전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위축되거나 즐겁지 않고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심할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게 보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이런 생각이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창피해하고 말 못할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연주자로서 이러한 마음은 당연히 들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가 오히려 좋은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하게 작용하여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주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이를 보완하거나 공부하거나 연습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앨범을 듣거나 좋아하는 연주 동영상을 보며 연주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과 장점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좋은 점을 찾아 배우는 자세와 태도는 분명히 음악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넓히는 중요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신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음악을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 류정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현재 한국 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출강하고 있으며, 어노인팅 사역팀의 메인건반으로, 사랑의교회 청년부 예배팀의 뮤직 디렉터로 섬기고 있다.

잘 만들어진 음악을 들으며 음들의 조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는지를 음악의 3요소인 멜로디, 화성, 리듬의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이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코드진행이 중요한 사람은 코드진행을 악보나 음원을 통해 확인하며 구체적인 코드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혹 분석이 잘 안된다면 어떤 느낌인지 구별해보고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연주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건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떠한 감정인지 그것만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음악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음악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음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을 잘 분별하고 그 마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노력을 통해 건강한 연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준비의 실제



장윤영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악기입니다.

노래하기전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는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할때 성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악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몸을 이해하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팀 보컬이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번의 예배를 감당해야 하는 찬양팀도 있습니다. 무리한 사용으로 성대가 다치게 되면 회복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찬양팀에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영선수가 준비운동을 하듯 찬양팀들에게도 기도 이외의 몸의 준비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여유있는 마음으로 연습에 참여합니다. 지각을 했다거나 준비하기로 한 것들을 하지 못해 불편한 마음으로 연습실에 들어선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몸의 상태, 목의 상태로 드러납니다. 리더와 팀원들은 조금 더 넓은 마음과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몸이 악기이니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악보와 장비를 미리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연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내린 후, 긴 수업이나 강의에 참여한 후, 노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몸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거나, 너무 숨이 차지 않는 선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트레칭으로 전체적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 장윤영

장윤영 1집, 2집(Songs of Hope), 찬송가앨범(Again Hymns)을 출시하고 〈버섯길〉, 〈낮은 데로 임하소서〉 등의 곡을 발표한 찬양사역자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과를 졸업하고, 한세대학교 CCM대회 대상으로 찬양사역을 시작하였다. 숭실대학교, 백석대학교에서 그리고 S.M Entertainment에서 신인교육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새로운 사역의 기점을 준비하며 London College of Music(Mmus Popular Music Performance)에서 수학하고 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탐라해상풍력 전경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룻기의 새로운 해석 담은 뮤지컬 영화 '룻기 원 뉴 맨'

구약성경 룻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영화 '룻기 원 뉴 맨(ONE NEW MAN, 감독 최혁)'이 성경 속 이야기를 새로운 신학적 시각으로 풀어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작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메시지를 중심 주제로 삼아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스크린에 담아냈다.



뮤지컬 영화 '룻기 원 뉴 맨'의 한 장면으로, 룻 역의 배우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인포원

영화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만에서 제작된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서구권 배우들이 출연하고 다양한 국가의 사역자와 신학자들이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연출은 대만 유니타리교회회를 섬기고 있는 최혁 선교사가 맡았다.

'룻기 원 뉴 맨'은 총 13곡의 창작 음악이 사용된 뮤지컬 형식으로 구성됐다. 작품 속에서는 룻기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등장해 해설을 더한다. 고든콘웰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박성현 교수와 히브리대 신학학 교수 데이비드 세다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와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등이 참여한 룻기 메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이 영화는 룻기를 단순한 가족 미담이

나 호성 이야기로 보는 기존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작품은 유대인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결합을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하며, 룻기 속 추수의 계절을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상징적 장면으로 그려낸다. 이러한 해석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조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됨과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영화는 일반 극장 개봉보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상영 방식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최 감독이 설립한 미디어 선교단체 인포원(IN for ONE)은 작품 상영과 함께 관련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단체는 오는 9월 이스라엘 감람산에서 '마라나타' 신앙 회복을 주제로 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영화도 이 행사와 연계해 소개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진리 위에 서서 복음 선포' 진주 청년연합집회 22일 개최

진주시성시화운동본부 다음세대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5시 진주대광고회에서 '진리 위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진주시 성시화 다음세대 청년연합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주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진주시성시화운동본부 다음세대위원회가 주관한다. 서부경남 지역 교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신앙을 점검하고 다음세대 사명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집회 강사로는 MBC 공채 18기 개그맨 출신이자 팟밴드 '달리버'의 리더 겸 보컬로 활동 중인 이정규 전도사가 초청됐다. 이 전도사는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달리버 프로젝트' 리더와 KOSTA 강사로 활동하며 'CBS성서학당' 등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행사는 GP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해 말씀 선포와 합심기도, 광고와 찬양, 소그룹 교제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다. 집회에는 서부경남 지역 교회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식사가 제공된다.

김동훈 목사(꿈꾸는교회·진주시성시화운동본부 다음세대위원장)는 "이번 청년연합집회를 통해 지역 교회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개최

굿네이버스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8회 '희망편지쓰기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희망편지쓰기대회는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이어지며, 학생들이 지구촌 이웃의 삶을 이해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번 제18회 희망편지쓰기대회는 전국

회'는 아동과 청소년이 세계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공감과 나눔을 배우는 대표적인 나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캠페인에 참여하며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또래 아동의 삶을 이해하고, 편지를 통해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번 제18회 희망편지쓰기대회는 전국 학교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캠페인 영상과 자료를 통해 소개된 아동에게 희망편지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주최 측은 이번 희망편지쓰기대회가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이 선정되며, 수상작은 9월 중 굿네이버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일신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00 CBS 은혜의 시간(109회) 30 TV강단 영광제일(이기홍)	10 장중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순복음진주초대-이경은 30 생명의 말씀 성령의새바람-김승욱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915회)	00 생명의 양식 삼승(김형석)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351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9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2회)
7:00	00 CTS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 말씀 포함장성-박석진 50 생명의 말씀 창왕상남-이창교	10 조장민 목사의 답답담 20 행복한 쉼터 한중사랑 (서영희) 50 비전선교 한성 (도원욱)	30 휴먼넥트(37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88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7회)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필산 목사
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8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행복한 쉼터 대구서문 (소문수)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항남교회)(573회)	00 하나님의 음성(182회)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451회) 창세기 18장	00 소문난 성경교실(647회) 장찬영 목사 여덟 번째 5강 옥중서신 I : 위의 것을 착으라 30 비전메시지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00 신교회행진(1회) 순복음삼마교회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다니엘 2장 김기현 목사	0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30 비전선교 선한목자 (김다우)	0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21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3회) 50 구약의 세계로 (오심소)(223회)	10 새롭게하소서(11414회) 김여호수아 목사 2부	00 폴다보연(9회) 요셉 2 : 시간의 주인 4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18회)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다큐 더 로드 30 여의도순복음 수요예배 이영훈 목사	20 휴먼넥트(35회)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 뉴저지은누리교회-(11회)	00 CBS NEWS 10 20 잘잘못 스페셜(2회) 배덕만 교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7회)	00 김재원의 광야예찬(5회) 고통의 상징에서 희망의 징표로 지성훈 목사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9회)
11:00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우간다 / 최재운 선교사 50 신앙에세이	30 행복한 쉼터 화광 (윤호균)	1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경교회)(395회) 50 예수동행일기(13회)	00 맞나는 교회(27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48회) 장찬영 목사 여덟 번째 6강 옥중서신 I : 관계의 영성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70회) 50 믿음의 리액션(26회) 제주도 2부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하늘중앙-유영완	00 GOODTV 뉴스 30 사람의 메시지 마라나타 (이영은)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3회) 20 [말씀] 권준 목사(사예를영재교회)(528회)	00 TV강단 시온(박성준)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30 강연소 통(52회) 움직임 리셋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반야월-이승희 30 신앙에세이 40 서정희의 매일성경(8회)	00 행복한 쉼터 군포사랑의 (성권용) 30 행복한 쉼터 높은뜻정의 (정재상)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22회) 2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249회)	20 2025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2회)	20 대한민국 복음이 담이다 30 비전메시지 세종 생수는교회 최병남 목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447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3559회) 이해동 목사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은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384회)	0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30 새롭게하소서(11060회) 정학영 대표 2부	00 백석의 센터(25회)
15:00	4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우간다 / 최재운 선교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315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49회) 고린도전서 28장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실황 이은상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두란노-이상문	00 사람의 메시지 성찬 (오원호) 30 사람의 메시지 수영로 (이규현)	0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44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3회)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320회)	10 성지가족(26회) 50 더 콜링(122회)	00 내 삶의 행복(198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2회)
17:00	00 사람의 말씀 오정현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00 류영모 목사의 멋진 이야기 20 행복한 쉼터 순복음축복(오영대) 5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34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6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96회) 50 영혼의 양식 양천(김동인)	00 성지가 좋다(520회) 광야의 공경자 하나님을 만나다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예원-정은주 3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20 다큐 더 로드 40 더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10 아메리카로 오심소(4회) 50 2026 KOSTA WORLD IN JEJU(7회)	00 TV강단 한성(도원욱) 30 TV강단 남양주한마음(남상진)	30 복음강단 군포세린교회 안성복 목사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광림의 시간 김정석	00 조용기 목사, 명성교	50 2026 KOSTA WORLD IN JEJU(7회)	00 기록한 뜻 세움의 시간(50회) 30 TV강단 정동제일(천영태)	00 말씀의 창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 세한-주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찾아서 10 행복한 쉼터 감사드림 (자영아) 40 혼민복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RE바이블(19회)	00 한소망 말씀 (최봉규)(160회) 50 크리스찬칼럼.동탄살아있는(서정현)	30 글로벌 신앙토크쇼 핫소담(49회) M81가 뭐라고...
21:00	00 메신저스 원유경 목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8회) 50 CTS뉴스	10 선교의 땅 가나를 가다 40 GOODTV NEWS	00 청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451회) 창세기 18장 50 살롬 살롬(44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11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다니엘 2장 김기현 목사	00 사론의 꽃 필 때 12세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30 충성! 은혜로군(55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14회) 김여호수아 목사 2부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18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45회) 장찬영 목사 여덟 번째 3강 옥중서신 I : 기도론의 정립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24회)
23:00	10 [CTS말씀의 명작] 별세목회자 이종표 목사의 죽어야 산다 제7부 별세의 지도자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시토피아(8회) 12세 4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1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8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3회)	10 잘잘못 스페셜(2회) 배덕만 교수 40 잘 믿고 잘 사는 법(61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7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49회)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9회)
24:00	00 Calling GOD(2447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명사들의 명감 40 더 깊은 울림 헤세드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675회)	10 CBS 아카데미 숲(21회)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정현 목사
1:00	00 더 초존 시즌5(더빙)(3회) 15세	00 조장민 목사의 답답담 10 예배실황 한소망 (류영모/최봉규)	00 [말씀] 이윤조 목사(갈보리교회)(365회) 4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64회)	00 통발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60회) 40 성령의 시대(31회)	00 THE 깊이 공금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62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2:00	1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우간다 / 최재운 선교사	10 노크토크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82회)	3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00 말씀의 창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 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67회)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다니엘 2장 김기현 목사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D. Greer's The Life Of David(8회) 30 [말씀] 류영렬 목사(와성통증양장로교회)(298회)	00 율포원(716회)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 30 내 영혼의 찬양	00 힐링스토리 1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 (조건호) 5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25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성)(4450회) 마태복음 21장 50 CBS 교회사(10413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5회) 이도원 목사 30 말씀 관용 이룸 목사의 성경 맵집(462회) 고린도전서 9장 맥잡기 10